



2026 여름

농업·농촌 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 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이슈&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 <http://aglook.krei.re.kr> “열린마당-농업농촌경제동향”

내용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노수정 nosu303@krei.re.kr, 안주영 ajuy@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35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7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1
4. 농축산물 수출입	22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 곡물	31
2. 엽근채소	36
3. 양념채소	42

4. 과일	51
5. 과채	58
6. 축산	65

Ⅳ.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및 의향

1. 주요 품목별 소비 동향	73
2. 소비 의향	83

특별주제

여름철 과일 소비행태 및 시사점	91
-------------------------	----

요 약

□ 일반경제 동향

-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26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약 2,99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는 약 13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함.
- 2026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6% 증가함. 2026년 6월 소매판매에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증가,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카드 승인액 증가율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로 전기 대비 1.1% 상승함. 상품은 122.9로 전기 대비 1.3%, 서비스는 117.1로 1.0% 상승함.
- 2026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9.6으로 전기 대비 4.7% 상승함. 농림수산품은 118.9로 전기 대비 2.8% 하락함.
- 2026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66.2로 전기 대비 8.0% 상승함. 농림수산품은 150.9로 전기 대비 4.2% 상승함.
- 2026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88.6으로 전기 대비 20.3% 상승함. 농림수산품은 146.2로 전기 대비 18.7% 상승함.
- 2026년 2/4분기 원/달러, 원/위안, 원/100엔, 원/유로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6년 1/4분기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전기 대비 각각 2.1%, 5.0%, 0.5% 성장하였고, 유로존 경제는 0.2% 감소함.

□ 농업·농촌경제 동향

- 2026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 7.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2026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함.
 - 곡물, 축산물은 전기 대비 상승, 청과물은 하락함.
- 2026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3.9%,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7.1% 상승함.
 -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기 대비 각각 2.0%, 10.2%, 1.5% 상승함.
- 2026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6.2로 전기 대비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는 농가구입가격지수(3.9%)의 상승폭이 농가판매가격지수(1.1%) 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 2026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 역시 7.0% 감소함.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약 110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약 27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83억 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함.

□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및 의향

- 소매유통데이터(POS)를 활용하여 2026년 2/4분기 국내 주요 농산물의 가구 내 소비 동향을 살펴보았음. 분석 대상은 농축산물 10개 품목(쌀, 감자, 배추, 무, 김치, 마늘, 양파, 건고추, 사과, 계란)이며, 판매량 및 중량당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품목별 소비 동향을 파악함.
- 2026년 2분기 식량작물 중 쌀은 생산량 감소, 감자는 저장감자 소진과 봄감자 출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반면, 채소류와 사과는 생산 및 재고 증가 등 공급 여건 개선으로 판매가격이 대체로 전년보다 낮았으며, 대부분 품목의 판매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계란은 생산량 감소로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할인 지원에 따른 구매 부담 완화 등으로 판매량도 증가하였음.
- 2026년 2/4분기 식품산업 경기 전반 현황지수는 93.3으로 전기 대비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업체가 많음.
 -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불안, 시기적 요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2026년 3/4분기 식품산업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100.4로 전기 대비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음.
 - 시기적 요인, 환경적 요인, 거래 및 소비 증가로 인한 호전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전기 대비 경기 호전을,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은 전기 대비 경기 악화를 전망함.
- 2026년 2/4분기 외식산업 경기 현재지수는 매출액 기준 78.8, 식재료 원가 기준 138.4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 식재료 원가 상승을 체감하는 업체가 많음.
 - 2026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매출액 기준 84.1, 식재료 원가 기준 130.2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 식재료 원가 상승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음.

□ 특별주제 - 여름철 과일 소비행태 및 시사점

- 포도와 복숭아 모두 소비자는 월 1~3회 정도 구매하며, 월평균 구매비용은 2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포도는 샤인머스켓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복숭아는 백도와 부드러운 식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샤인머스켓은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만족도가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품질 개선 시 재구매 의향은 절반 수준으로 조사됨.
-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포도와 복숭아 모두 가격이 약 20% 상승할 경우 소비자의 대체 구매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산 대체 품목은 수박과 참외 등의 여름철 과일·과채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수입과일은 바나나의 대체 구매 의향이 가장 높았음. 이는 가격 수준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품목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구매 속성에 대한 IPA 분석에서는 포도와 복숭아 모두 소비자가 맛(당도), 신선도, 식감, 안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포도는 맛(당도), 식감 및 가격이 집중 개선이 필요한 속성으로 분석되었으며, 복숭아는 가격이 가장 우선적인 개선 과제로 도출됨. 수정 IPA 분석에서도 포도는 당도, 복숭아는 가격이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 종합하면, 여름철 과일 소비는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매우 높으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다른 국산 과일이나 수입과일로의 대체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 유지와 함께 가격 부담 완화,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핵심 품질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원계열(전년 동기 대비)은 3.7% 성장함.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3.6% 증가함.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단위: %

구분	2024				2025 ^p				2026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GDP)	1.0	-0.2	0.1	0.2	-0.2	0.6	1.4	-0.1	1.8	0.6 (3.7)
민간소비	0.8	0.0	0.3	0.0	0.2	0.7	1.1	0.4	0.6	0.4 (2.5)
정부소비	1.1	0.7	1.0	0.3	0.0	1.2	1.4	1.0	-0.4	0.2 (2.2)
건설투자	4.9	-2.3	-3.4	-3.5	-4.0	-0.7	0.2	-2.6	1.4	-0.2 (1.3)
설비투자	-1.5	-0.2	3.8	0.8	0.2	-1.8	1.3	-1.6	6.6	0.2 (6.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6	-0.3	0.1	1.6	0.8	0.9	0.9	-0.2	0.9	3.3 (4.9)
재고증감	0.0	-0.1	0.1	0.1	0.3	-0.2	-0.1	0.3	-0.3	-0.2 (-0.1)
수출	1.3	1.4	0.2	0.9	-0.9	4.1	2.6	-1.1	5.9	1.4 (9.0)
수입	1.4	1.2	0.8	0.2	-0.5	3.0	1.6	-0.2	3.9	0.8 (6.3)
국내총소득(GDI)	2.2	-0.7	0.1	0.7	-0.1	1.1	0.8	1.9	8.7	3.6 (15.6)

주 1)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연쇄가격 기준이며, 2025년, 2026년 자료는 잠정치임.

3)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 7. 23.),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안주영 연구원(ajuy@krei.re.kr), 노수정 전문연구원(nosu303@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6년 2/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증가함.
 - 민간소비는 재화(가전제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모두 늘어 0.4%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2% 증가함.
 -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이 줄어 0.2%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 제조용기계 등)이 늘어 0.2%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1.4% 증가하였고,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를 중심으로 0.8% 증가함.
- 2026년 2/4분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은 농림어업이 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함.
 - 농림어업은 재배업 및 어업을 중심으로 7.1% 감소함.
 -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늘어 1.1% 증가함.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

구분	2024				2025 ^p				2026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2.3	2.2	-0.9	0.2	0.8	-1.7	1.7	-1.1	4.3	-7.1(-2.4)
제조업	1.2	0.4	0.3	0.6	-0.6	2.1	1.7	-0.6	3.9	1.2(6.5)
서비스업	0.4	0.2	0.3	0.4	-0.1	0.7	1.2	0.6	0.6	1.1(3.5)
(도소매 및 숙박음식)	1.1	-0.8	-1.6	0.5	0.3	0.8	1.9	0.1	1.2	1.1(4.2)
(운수업)	-1.5	4.0	3.1	1.5	-3.6	3.2	1.1	-0.9	-0.5	2.0(1.5)
(금융 및 보험업)	2.9	1.3	2.8	0.3	0.7	0.5	1.8	3.0	2.4	1.8(9.2)
(부동산업)	-0.5	0.8	-0.7	-0.2	-0.1	0.4	0.6	0.8	0.4	1.0(3.0)
(정보통신업)	-0.5	-2.0	2.4	0.5	0.1	0.2	0.7	0.9	-0.5	3.8(4.8)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1.4	-0.1	2.0	1.9	0.7	1.6	0.7	3.7	0.0	0.7(5.1)

주 1)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연쇄가격 기준이며, 2025년, 2026년 자료는 잠정치임.

3)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 7. 23.),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 고용³⁾

- 2026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약 2,99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2026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약 2,9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분야별로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감소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은 증가함.
 - 2026년 6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 1천 명, 4만 5천 명 감소함.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9만 5천 명, 7만 2천 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3천 명 감소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4	2025					2026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9,399 64.5	29,599 64.7	29,196 63.9	29,890 65.4	29,700 64.9	29,610 64.6	29,427 64.1	29,933 65.1	0.1 -0.3%p
취업자	28,576	28,769	28,215	29,046	29,050	28,765	28,398	29,078	0.1
농림어업	1,485	1,378	1,229	1,467	1,466	1,349	1,144	1,365	-7.0
광공업	4,463	4,391	4,405	4,423	4,376	4,361	4,379	4,330	-2.1
건설업	2,065	1,940	1,921	1,957	1,935	1,947	1,895	1,918	-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536	5,532	5,527	5,556	5,528	5,519	5,521	5,513	-0.8
전기·운수·통신·금융	3,669	3,764	3,710	3,767	3,781	3,797	3,786	3,850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1,358	11,764	11,424	11,875	11,964	11,792	11,673	12,103	1.9
실업자	823	830	980	844	651	845	1,029	855	1.3
실업률	2.8	2.8	3.4	2.8	2.2	2.9	3.5	2.9	0.1%p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6. 8. 6.

3) 고용 부문은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6월 고용동향」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6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 2026년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3.4%) 판매가 줄었으나, 준내구재(2.3%), 비내구재(0.9%)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0.1% 증가함.
- 2026년 6월 소매판매에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증가,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카드승인액 증가율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동향

단위: %(전기 대비)

구분	2024	2025 ^p					2026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민간소비	1.3	1.5	0.2	0.7	1.1	0.4	0.6	-	-
소매판매	-1.9	0.3	0.6	-0.6	1.2	0.6	2.4	-3.5	0.1
(내구재)	-3.6	3.8	3.7	-1.1	4.8	-3.8	6.5	-11.0	-3.4
(준내구재)	-3.0	-2.1	-2.3	-1.0	2.9	0.1	3.0	0.1	2.3
(비내구재)	-0.8	-0.2	0.1	-0.1	-1.1	2.8	0.4	-1.1	0.9

주 1) 2025년, 2026년 민간소비와 2026년 4월, 5월 소매판매 자료는 잠정치임.

2)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임.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2026년 1/4분기 1인 이상(농림어가 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4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함.
 - 경상소득은 2.4%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0.3%, 2.6%, 9.1%, 9.7% 증가함.
 - 비경상소득은 10만 4천 원으로 5.8% 증가함.

소득동향(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4				2025				2026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득	1.4	3.5	4.4	3.8	4.5	2.1	3.5	4.0	2.4
경상소득	2.0	3.4	3.7	3.6	4.2	1.9	3.5	4.1	2.4
(근로소득)	-1.1	3.9	3.3	2.3	3.7	1.5	1.1	3.9	0.3
(사업소득)	8.9	1.4	0.3	5.5	3.0	0.2	0.2	3.0	2.6
(재산소득)	50.0	29.5	51.8	19.9	6.2	7.6	-0.8	-8.9	9.1
(이전소득)	5.8	2.4	7.7	5.6	7.5	5.1	17.7	7.9	9.7
비경상소득	-28.2	9.7	63.9	12.1	21.1	14.1	4.6	-3.5	5.8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검색일: 2026. 8. 6.

- 2026년 1/4분기 2인 이상(비농림어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691만 6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함.

소득동향(2인 이상, 비농림어가)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4				2025				2026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득	0.6	4.3	4.9	4.6	6.3	2.4	4.5	4.2	2.6
경상소득	1.2	3.9	4.2	4.0	6.0	2.2	4.4	4.6	2.7
(근로소득)	-1.8	4.4	4.2	3.2	4.2	0.8	1.4	5.3	1.6
(사업소득)	6.1	1.2	0.6	4.4	7.6	3.1	1.3	1.2	1.4
(재산소득)	55.5	44.4	77.6	23.7	4.7	10.4	-2.1	-13.9	2.7
(이전소득)	7.2	3.0	5.2	5.6	12.2	7.3	23.7	8.1	9.1
비경상소득	-28.1	27.5	65.2	42.8	24.3	11.5	14.1	-12.6	-7.1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검색일: 2026. 8. 6.

- 2026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⁵⁾는 106.6으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함.
 - (2월) 112.1 → (3월) 107.0 → (4월) 99.2 → (5월) 106.1 → (6월) 106.6

월별 소비자심리지수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소비자동향조사, 검색일: 2026. 8. 6.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4. 물가6)

- 2026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로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함.
 - 상품은 122.9로 전기 대비 1.3%, 서비스는 117.1로 1.0% 상승함.
 -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전기 대비 2.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지수	114.2	116.6	116.0	116.3	116.7	117.4	118.4	119.8	1.1	3.0
상품	117.2	119.6	119.3	118.9	119.5	120.5	121.2	122.9	1.3	3.4
농축수산물	123.1	126.0	126.6	122.9	127.1	127.4	128.2	124.9	-2.6	1.6
공업제품	113.9	116.1	115.5	115.8	116.2	116.9	117.7	120.6	2.4	4.1
전기·가스·수도	137.1	139.7	140.9	140.9	135.9	140.9	141.1	141.2	0.0	0.2
서비스	111.6	114.1	113.2	114.1	114.2	114.8	116.0	117.1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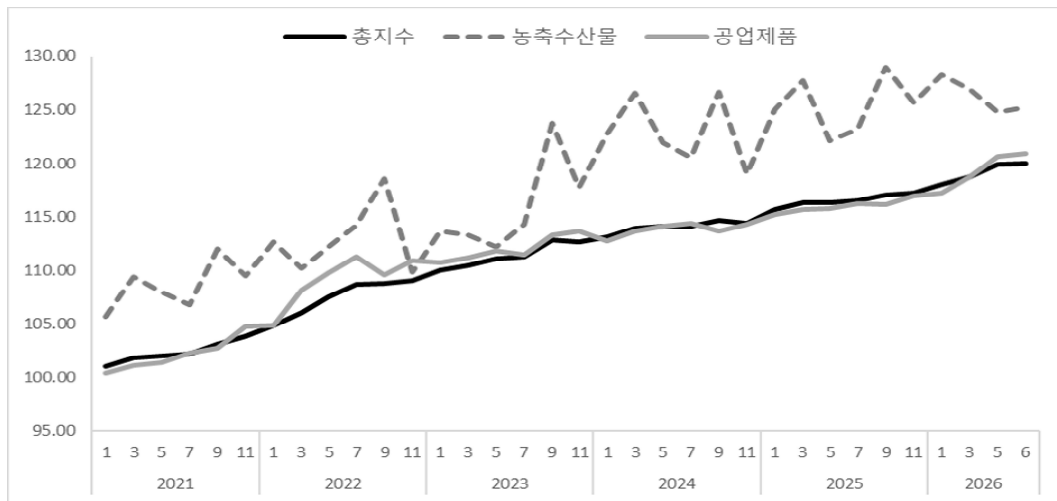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소비자물가조사, 검색일: 2026. 8. 6.

- 202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함.
- 2026년 6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0.1% 하락함.
 - 농축수산물은 0.4%, 공업제품은 0.3% 상승하였으며, 전기·가스·수도는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집세는 0.1% 상승하였으나,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는 각각 0.1%, 0.2% 하락함.

6) 물가 부문은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2026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6년 6월 기준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주류·담배, 기타 상품·서비스, 의류·신발은 전월 대비 상승, 교통, 오락·문화, 통신은 하락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2020년=100)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소비자물가조사, 검색일: 2026.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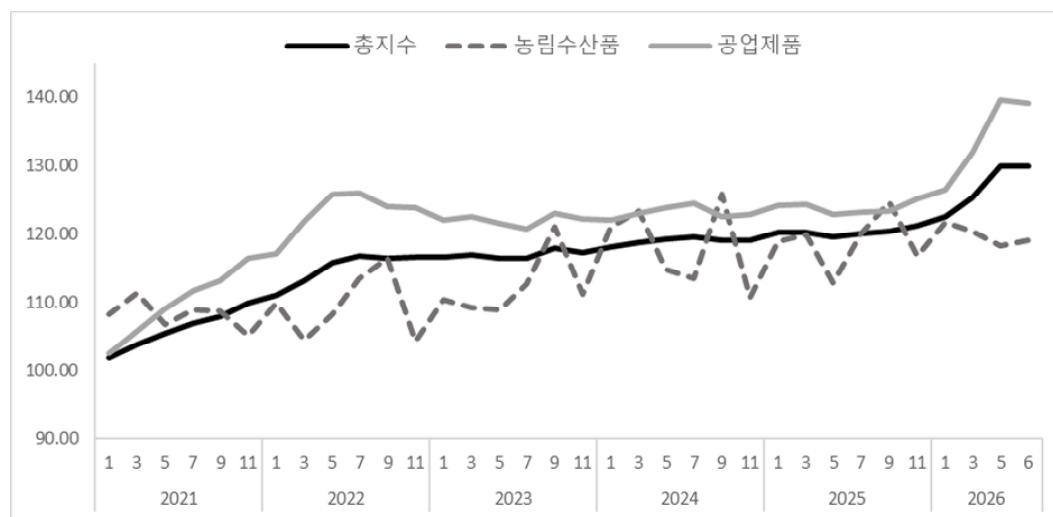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9.6으로 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함.
 - 농림수산품은 118.9로 전기 대비 2.8% 하락함.
- 202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30.0으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함.
 - 농림수산품은 축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내려 전월 대비 0.3% 하락함.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함.
 -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p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지수	119.1	120.5	120.3	119.9	120.3	121.3	123.7	129.6	4.7	8.1
농림수산물	117.6	119.1	119.4	114.9	123.0	119.1	122.3	118.9	-2.8	3.5
광산물	133.0	127.7	130.2	128.8	125.7	125.9	125.1	126.0	0.7	-2.2
공산물	123.3	124.0	124.3	123.3	123.3	125.1	128.6	139.1	8.2	12.8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145.3	149.8	150.8	150.5	148.9	148.9	149.0	150.8	1.2	0.2
서비스	110.5	112.3	111.5	111.9	112.5	113.3	114.8	117.0	1.9	4.5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검색일: 2026. 8. 6.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2020년=100)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검색일: 2026. 8. 6.

- 2026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66.2로, 전기 대비 8.0%, 전년 동기 대비 22.2% 상승함.
- 2026년 6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광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리며 전월 대비 4.4%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0.6% 상승한 161.3으로 나타남.
 -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6.4% 하락, 전년 동월 대비 9.5% 상승함.
 - 원재료는 광산품이 전월 대비 11.3% 하락하였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내리며 3.2% 하락함. 자본재 및 소비재는 모두 1.6% 상승함.
- 2026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50.9로 전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함. 6월은 152.5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5.7% 상승함.
- 2026년 2/4분기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48.2로 전기 대비 7.6%, 전년 동기 대비 18.3% 상승함. 6월은 146.7로 전월 대비 1.8%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9.3%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a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 지 수	139.6	139.0	143.9	136.1	135.2	140.8	153.9	166.2	8.0	22.2
농림수산물	130.7	139.5	144.0	137.4	134.4	142.2	144.8	150.9	4.2	9.8
농 산 물	145.7	154.5	165.4	152.7	145.7	154.4	154.6	161.8	4.7	5.9
공 산 품	124.6	127.4	129.5	125.3	124.1	130.6	137.7	148.2	7.6	18.3

주: 2026년 2/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수출입물가조사, 검색일: 2026. 8. 6.

- 2026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88.6으로, 전기 대비 20.3%, 전년 동기 대비 45.7% 상승함.
- 2026년 6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 기기 등의 상승에도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48.9%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34.1% 상승함.
- 2026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46.2로 전기 대비 18.7%, 전년 동기 대비 33.8% 상승함. 6월은 151.1로 전월 대비 4.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40.5%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p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 지 수	129.9	132.8	135.0	129.4	128.6	138.1	156.8	188.6	20.3	45.7
농림수산물	105.2	112.8	110.6	109.2	113.0	118.4	123.1	146.2	18.7	33.8
농 산 물	88.9	93.1	95.2	94.8	91.5	90.8	84.2	85.0	0.9	-10.4
공 산 품	130.0	132.9	135.1	129.5	128.7	138.2	156.9	188.8	20.3	45.7

주: 2026년 2/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수출입물가조사, 검색일: 2026. 8. 6.

5. 금융·환율⁷⁾

- 2026년 5월 협의통화(M1, 평잔)는 전월 대비 1.1%, 원계열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함.
- 2026년 5월 광의통화(M2, 평잔)는 전월 대비 0.8%, 원계열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함.
- 2026년 5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월 대비 1.4%, 원계열은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함.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단위: %

구분	2025							202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p
M1	0.7	1.0	0.4	1.2	1.0	-0.4	1.6	0.1	0.7	1.7	0.6	1.1(10.0)
M2	0.5	0.5	1.1	0.5	0.0	0.1	0.4	0.8	0.0	0.4	0.6	0.8(5.8)
Lf	0.5	0.6	1.0	0.7	0.5	0.2	0.4	0.8	0.8	0.4	0.5	1.4(8.0)
본원통화	1.2	0.5	0.4	1.8	0.1	1.1	-0.5	1.7	-0.1	1.3	-0.4	1.1(8.4)

주 1) 평균잔액 기준이며, 2026년 5월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월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3) M1은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산출됨.

4) M2는 'M1 + 만기2년미만 정기예·적금 + 시장형상품 + 만기2년미만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산출됨.

5) Lf는 'M2 + M2 포함 금융상품중 만기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 + 한국증권금융취의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우체국 보험 포함)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으로 산출됨.

6) 본원통화는 '현금통화 + 중앙은행의 대 예금취급기관 부채 등(RP, 통화안정증권 제외)'로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통화금융통계, 검색일: 2026. 8. 6.

- 2026년 6월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과 금리인상 기대 확대로 상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중순 미국-이란 간 종전 잠정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는 다소 완화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6년 5월 통화 및 유동성」, 「202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2026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5						202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CD	2.5	2.5	2.6	2.6	2.7	2.8	2.7	2.8	2.8	2.8	2.8	2.9
국고채	2.5	2.4	2.5	2.6	2.9	3.0	3.0	3.2	3.4	3.4	3.7	3.8
회사채	3.0	2.9	2.9	3.0	3.3	3.5	3.5	3.7	4.0	4.1	4.3	4.4
무담보콜금리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주: CD는 CD(91일), 국고채는 국고채(3년), 회사채는 회사채(3년, AA-), 콜금리는 무담보콜금리(1일, 중개거래)의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통화금융통계, 검색일: 2026. 8. 6

- 2026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5% 상승한 1,502원임.
 - 2026년 6월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시장상황 점검회의⁸⁾와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⁹⁾ 소식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2026년 2/4분기 원/100엔 환율, 원/유로 환율, 원/위안 환율은 각각 942원, 1,746원, 221원으로 전기 대비 1.0%, 1.9%, 4.3% 상승함.

원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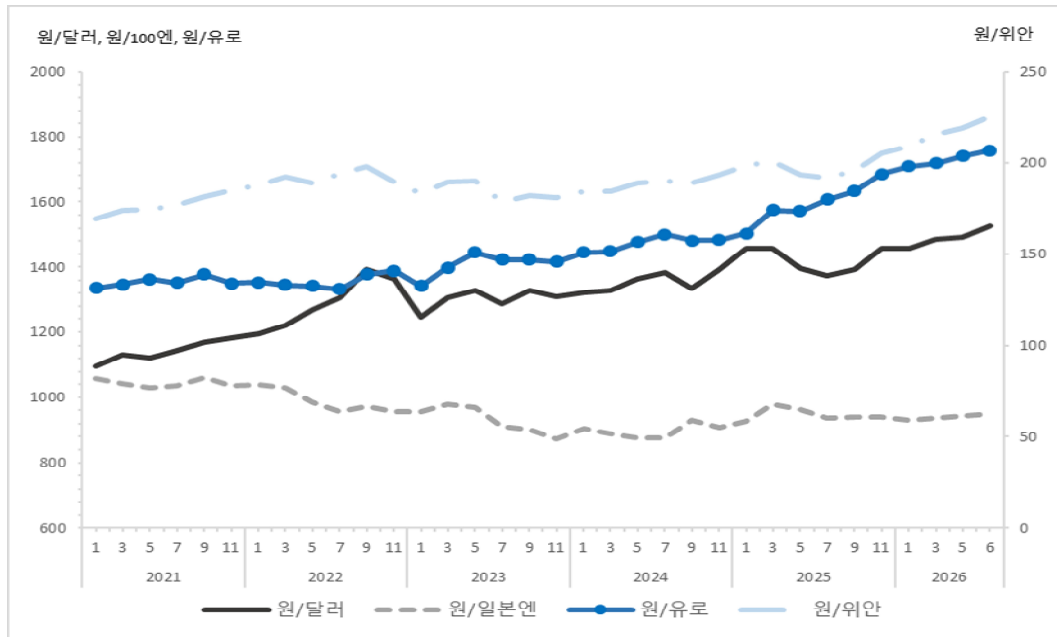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364	1,422	1,453	1,404	1,385	1,451	1,465	1,502	1,487	1,490	1,527
원/100엔	900	951	954	971	940	940	933	942	934	942	950
원/유로	1,475	1,607	1,529	1,589	1,619	1,688	1,714	1,746	1,738	1,741	1,758
원/위안	189	198	199	194	194	205	212	221	217	219	226

주: 평균 환율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통화금융통계, 검색일: 2026. 8. 6.

8)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6.7.).

9)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는 해외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외화를 미리 정한 환율로 매도하는 거래로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및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국민연금 운용규정, 2026).

원화 환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통화금융통계, 검색일: 2026. 8. 6.

6. 세계경제¹⁰⁾

- 2026년 1/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1% 성장함.
 - 2026년 2/4분기 미국 경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확대된 가운데 소매판매 증가폭 확대와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등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026년 1/4분기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2/4분기 중국 경제는 도시고정자산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높아진 1.2% 수준을 보임.
- 2026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5% 성장함.
 - 2026년 2/4분기 일본 경제는 산업생산 증가폭은 점차 축소된 반면, 수출은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2026년 1/4분기 유로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함.
 - 2026년 2/4분기 유로존 경제는 소매판매 증가 전환과 종합 구매관리자지수 (PMI) 상승 등 경기지표가 개선되었으나, 6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확대됨.

10)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세계 주요국 국내총생산

단위: %

국가	지표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2.8	2.1	-0.6	3.8	4.4	0.5	2.1	-	-
	산업생산(전기비)	-0.7	1.1	1.0	0.5	0.5	-0.5	0.3	0.9	0.1
	소매판매(전기비)	3.0	3.7	0.4	0.6	1.5	0.4	1.3	0.4	0.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9	2.7	2.7	2.4	2.9	2.8	3.1	3.8	4.2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5.0	5.0	5.4	5.2	4.8	4.5	5.0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5.8	5.9	6.5	6.2	5.8	5.0	6.4	4.1	4.5
	소매판매(전년동기비)	3.5	3.7	4.6	5.4	3.4	1.7	2.4	0.2	-0.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0.0	-0.1	0.0	-0.2	0.6	0.9	1.2	1.2
일본	실질GDP(전기비)	-0.2	1.1	0.5	0.3	-0.6	0.2	0.5	-	-
	산업생산(전기비)	-2.6	-0.3	0.0	-0.5	-1.0	0.2	2.5	0.5	0.1
	소매판매(전기비, 명목)	2.5	1.4	1.1	0.1	-1.1	0.6	1.5	2.1	1.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7	3.2	3.8	3.4	2.9	2.7	1.4	1.4	1.5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0	1.4	0.7	0.1	0.3	0.2	-0.2	-	-
	산업생산(전기비)	-3.0	1.5	2.3	-0.6	0.0	0.2	-0.8	0.1	-
	소매판매(전기비)	1.3	2.4	0.5	0.8	0.3	0.6	0.1	-0.3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4	2.1	2.3	2.0	2.1	2.1	2.0	3.0	3.2

자료: 기획재정부(2026), 최근경제동향, 검색일: 2026.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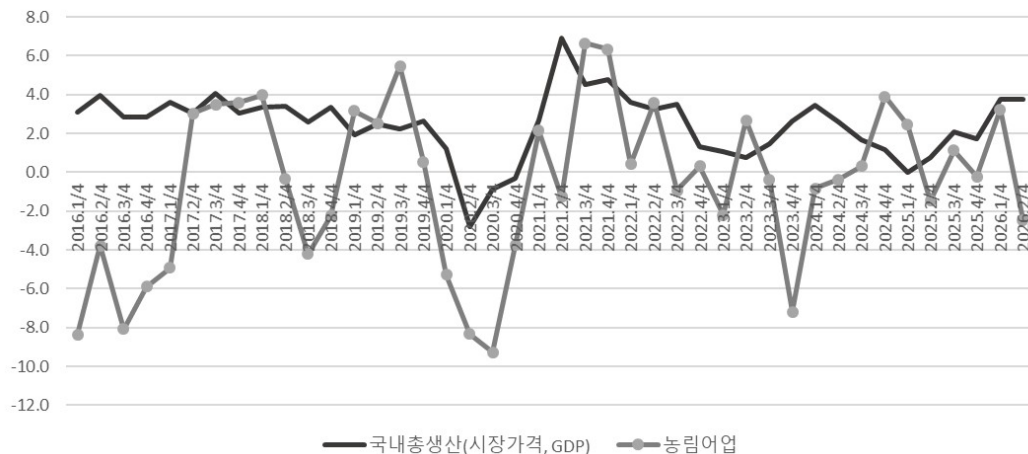
II. 농업·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2026년 2/4분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8조 1,164억 원으로 전기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00조 4,057억 원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



주 1)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0년 연쇄가격 기준임.

2) 2026년 1/4분기 이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검색일: 2026. 8. 7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안주영 연구원(ajuy@krei.re.kr), 노수경 전문연구원(nosu303@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6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4.4로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함.
- 곡물, 축산물은 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청과물은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20=100)

구 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 지수	116.3	119.1	121.9	118.1	119.9	119.3	123.1	124.4	1.1	5.3
곡물	96.3	107.2	97.3	108.6	111.5	109.9	112.4	125.5	11.7	15.6
- 미곡	92.4	105.4	93.7	101.1	110.6	114.5	111.5	118.2	6.0	16.9
- 맥류	94.9	106.7	105.0	107.9	106.7	110.0	110.8	115.3	4.1	6.9
- 두류/잡곡	110.0	114.7	116.8	126.3	119.9	98.1	112.0	128.5	14.7	1.7
- 서류	111.9	112.6	100.1	148.0	111.3	86.9	120.0	183.3	52.8	23.9
청과물	140.4	129.7	147.0	125.2	128.2	126.4	128.5	124.3	-3.3	-0.7
- 채소	134.2	123.3	145.3	109.2	124.8	131.4	124.7	108.6	-12.9	-0.5
- 과수	151.2	140.9	149.9	153.1	134.3	117.7	135.1	151.8	12.4	-0.8
축산물	103.5	113.7	107.1	114.6	117.3	115.9	117.9	124.1	5.3	8.3
- 가축	90.9	103.8	97.4	103.9	106.8	106.9	110.7	116.1	4.9	11.7
- 기타	127.2	132.5	125.2	134.9	137.0	132.8	131.4	139.1	5.9	3.1
기타농산물	124.0	127.7	142.6	126.0	118.2	127.1	146.1	123.8	-15.3	-1.7
- 특용작물	114.9	118.4	128.0	124.9	117.5	108.5	126.5	112.4	-11.1	-10.0
- 화훼	144.4	148.8	177.3	128.6	119.3	168.4	191.4	148.6	-22.4	15.6
- 부산물	122.9	124.4	122.9	122.9	122.9	128.8	128.8	128.8	0.0	4.8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검색일: 2026. 8. 7.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5.5로 전기 대비 11.7% 상승함.
 - 미곡은 118.2로 6.0% 상승하였으며, 멥쌀은 0.4% 상승, 찰쌀은 56.3% 하락함.
 - 맥류는 115.3으로 4.1% 상승하였으며, 쌀보리(조곡)(15.8%), 맥주보리(5.6%)는 상승, 보리쌀(정곡)은 11.3% 하락함.
 - 두류/잡곡은 128.5로 14.7% 상승함. 이 중 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검정콩은 11.3% 하락함.
 - 서류는 183.3으로 52.8% 상승하였으며, 고구마, 감자가 각각 17.1%, 3.3% 상승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기 대비 12.9% 하락함.
 - 엽채류는 74.7로 32.6% 하락함. 상추, 배추, 양배추가 각각 25.0%, 13.6%, 32.4% 하락함.
 - 근채류는 87.4로 10.4% 상승하였으며, 무는 10.0% 하락, 당근은 26.5% 상승함.
 - 조미채소류는 123.6으로 20.2% 상승함. 건고추(30.2%)는 상승한 반면, 마늘(14.5%), 양파(44.0%), 파(16.2%)가 하락함.
 - 과채류는 111.5로 26.1% 하락하였으며. 오이(55.2%), 호박(54.9%), 참외(25.8%), 딸기(50.4%), 일반토마토(22.9%), 방울토마토(25.3%), 파프리카(37.7%), 풋고추(56.4%)가 하락함. 수박은 1.7%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1.8로 전기 대비 12.4% 상승함.
 - 사과, 복숭아, 단감이 각각 18.9%, 2.3%, 4.3% 하락하였으나, 배(1.1%), 포도(81.4%), 감귤(18.1%)은 상승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4.1로 전기 대비 5.3% 상승함.
 - 가축은 116.1로 4.9% 상승함. 한우(암)(2.6%), 한우(수)(5.8%), 육우(0.3%), 한우송아지(암)(0.2%), 젖소(0.4%)는 하락하였으나, 한우송아지(수)(3.3%), 육우송아지(16.2%), 성돈(20.3%), 자돈(21.7%), 육계(12.0%)는 상승함. 오리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임.
 - 기타축산물은 139.1로 5.9% 상승함. 우유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계란은 13.2% 상승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6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9.3으로 전기 대비 3.9%,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141.7로 전기 대비 7.1% 상승하였음.
 - 비료비, 사료비, 영농자재비는 각각 28.0%, 2.1%, 8.7% 상승하였으나, 종자종묘, 농약비는 전기와 비슷함.
-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141.4, 146.4, 116.1로 전기 대비 각각 2.0%, 10.2%, 1.5%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20=100)

구 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 지수	120.1	121.6	121.1	121.0	121.4	123.0	124.4	129.3	3.9	6.9
가계용품	114.0	116.6	116.1	116.3	116.7	117.4	118.6	119.6	0.8	2.8
재료비	132.5	129.8	129.6	129.6	130.1	130.1	132.3	141.7	7.1	9.3
- 종자종묘	114.0	112.5	114.2	114.2	110.8	110.8	118.2	118.2	0.0	3.5
- 비료비	160.2	169.1	169.1	169.1	169.1	169.1	179.9	230.3	28.0	36.2
- 농약비	126.8	132.0	132.0	132.0	132.0	132.0	138.8	138.8	0.0	5.2
- 사료비	129.4	121.6	120.8	120.8	122.5	122.5	120.8	123.3	2.1	2.1
- 영농자재비	141.1	142.0	141.9	142.0	142.0	142.0	142.0	154.3	8.7	8.7
노무비	135.8	137.9	136.1	137.9	138.3	139.3	138.6	141.4	2.0	2.5
경비	129.3	130.2	130.8	127.3	127.4	135.2	132.9	146.4	10.2	15.0
- 영농광열비	170.4	168.0	171.8	159.9	160.4	179.9	171.9	215.6	25.4	34.8
- 임차료	123.7	128.7	127.6	127.7	127.8	131.9	132.1	133.0	0.7	4.2
- 농작업위탁비	92.9	93.4	92.9	92.9	92.9	95.1	95.1	95.1	0.0	2.4
- 판매자재비	121.7	120.3	120.3	120.3	120.3	120.3	120.3	120.3	0.0	0.0
자산구입비	98.6	106.0	103.5	106.1	106.3	108.2	114.4	116.1	1.5	9.4
- 기계구입	101.3	104.9	106.1	106.1	103.6	103.6	109.1	109.2	0.1	2.9
- 가축구입비	91.7	108.9	97.0	106.2	113.0	119.4	127.5	133.4	4.6	25.6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검색일: 2026. 8. 7.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6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6.2로 전기 대비 2.8%,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1.1%), 농가구입가격지수(3.9%) 모두 상승하였으나, 구입가격의 상승폭이 판매가격보다 크게 나타나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6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43.2로 전기 대비 7.7% 상승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가판매가격	116.3	119.1	121.9	118.1	119.9	119.3	123.1	124.4	1.1	5.3
농가구입가격	120.1	121.6	121.1	121.0	121.4	123.0	124.4	129.3	3.9	6.9
농업투입재가격	131.1	130.2	130.4	129.4	129.4	131.5	132.9	143.2	7.7	10.6
농가교역조건	96.8	97.9	100.7	97.6	98.8	97.0	99.0	96.2	-2.8	-1.4
농가경영조건	88.7	91.5	93.5	91.2	92.6	90.7	92.6	86.9	-6.2	-4.8

주 1)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X100'으로 산출됨.

2) 농가경영조건은 '농가판매가격/농업투입재가격X100'으로 산출됨.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검색일: 2026. 8. 6.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6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6만 5천 명으로 전기 대비 19.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8만 3천 명으로 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 중 전체 남성 수는 84만 1천 명, 여성 수는 52만 4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156만 1천 명으로 전기 대비 12.6%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산업	28,215	29,046	29,050	28,765	28,398	29,078	2.4	0.1
(계절조정)	(28,724)	(28,766)	(28,794)	(28,792)	(28,909)	(28,797)	-0.4	0.1
농림어업	1,229	1,467	1,466	1,349	1,144	1,365	19.3	-7.0
(계절조정)	(1,442)	(1,379)	(1,356)	(1,348)	(1,341)	(1,283)	-4.3	-7.0
남성	793	879	882	845	763	841	10.2	-4.3
여성	436	588	584	504	381	524	37.5	-10.9
농가	1,589	1,754	1,718	1,584	1,386	1,561	12.6	-11.0
농가남성	926	973	958	904	823	880	6.9	-9.6
농가여성	663	781	760	680	563	681	21.0	-12.8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6. 8. 7.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입 동향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11만 4천 톤으로 전기 대비 4.1%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함.
 - 농산물은 918만 2천 톤으로 전기 대비 4.5% 증가함. 곡류, 과일류가 각각 7.4%, 24.0% 증가하였으나, 채소류가 2.3% 감소함.
 - 축산물은 62만 8천 톤으로 전기 대비 3.2% 감소함. 포유육류, 가금육류는 각각 7.7%, 17.5% 감소하였으나, 낙농품은 4.7% 증가함.
 - 임산물은 330만 4천 톤으로 전기 대비 4.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축산물	12,816	13,536	12,979	12,938	12,592	13,114	4.1	-3.1
농산물	8,760	9,448	9,023	9,131	8,787	9,182	4.5	-2.8
- 곡류	3,948	4,297	4,018	4,318	3,850	4,134	7.4	-3.8
- 과실류	309	362	280	218	263	326	24.0	-9.9
- 채소류	392	359	403	388	347	339	-2.3	-5.6
축산물	550	557	542	499	649	628	-3.2	12.7
- 포유육류	299	300	294	231	352	325	-7.7	8.3
- 가금육류	64	69	56	71	80	66	-17.5	-4.3
- 낙농품	93	102	123	93	107	112	4.7	9.8
임산물	3,507	3,532	3,414	3,307	3,155	3,304	4.7	-6.5
수 산 물	1,848	1,609	1,740	1,941	1,510	1,341	-11.2	-16.7
전 체	14,664	15,146	14,719	14,879	14,101	14,455	2.5	-4.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6. 8. 7.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10억 7,8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 농산물은 67억 3,5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4.1% 증가함. 곡류, 과실류는 각각 4.3%, 17.1% 증가하였으나, 채소류는 2.2% 감소함.
 - 축산물은 29억 1,4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9.8% 감소함. 포유육류, 가금육류, 낙농품이 각각 14.2%, 14.1%, 5.1% 감소함.
 - 임산물은 14억 3,0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함.
- 2026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8억 1,684만 달러로 전월 대비 9.6%,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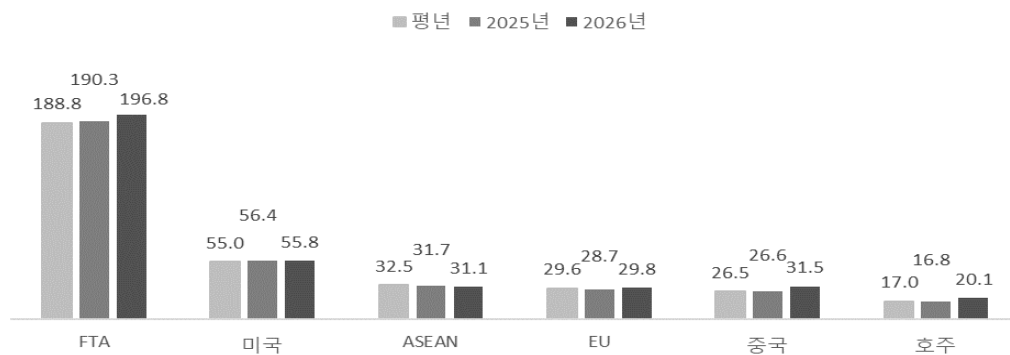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축산물	10,491	11,183	11,064	10,181	11,091	11,078	-0.1	-0.9
농산물	6,319	6,972	6,719	6,450	6,469	6,735	4.1	-3.4
- 곡류	1,108	1,189	1,100	1,176	1,089	1,136	4.3	-4.5
- 과일류	590	724	539	418	567	664	17.1	-8.3
- 채소류	322	330	358	348	323	316	-2.2	-4.2
축산물	2,662	2,690	2,920	2,344	3,232	2,914	-9.8	8.3
- 포유육류	1,735	1,682	1,756	1,301	2,161	1,855	-14.2	10.3
- 가금육류	152	171	160	194	213	183	-14.1	7.0
- 낙농품	407	445	529	412	471	447	-5.1	0.4
임산물	1,509	1,521	1,426	1,387	1,389	1,430	3.0	-6.0
수 산 물	1,530	1,563	1,607	1,707	1,555	1,597	2.7	2.2
전 체	12,021	12,747	12,671	11,888	12,646	12,676	0.2	-0.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6. 8. 7.

- 2026년 1~6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196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함.
 - 주요 수입대상국 상위 5개국(미국, ASEAN, EU, 중국, 호주)의 수입액은 5.0% 증가한 168억 3천만 달러임.

주요 수입대상국별 농식품 수입액 추이(1~6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제14권 제2호.

4.2. 수출 동향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23만 8천 톤으로 전기 대비 17.7%,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함.
 - 농산물은 92만 8천 톤으로 전기 대비 13.9% 증가함. 과실류는 25.8% 감소하였으나, 곡류, 채소류가 각각 612.5%, 19.2% 증가함.
 - 축산물은 11만 8천 톤으로 전기 대비 61.6% 증가함. 포유육류는 50.0%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 낙농품은 각각 38.9%, 10.0% 감소함.
 - 임산물 19만 1천 톤으로 전기 대비 16.5%,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축산물	1,048	1,197	1,190	1,107	1,052	1,238	17.7	3.4
농산물	777	893	934	845	815	928	13.9	3.9
- 곡류	11	81	103	19	8	57	612.5	-29.6
- 과실류	27	25	31	44	31	23	-25.8	-8.0
- 채소류	24	29	23	26	26	31	19.2	6.9
축산물	106	125	96	110	73	118	61.6	-5.6
- 포유육류	3	2	3	3	2	3	50.0	50.0
- 가금육류	18	13	15	19	18	11	-38.9	-15.4
- 낙농품	9	9	9	10	10	9	-10.0	0.0
임산물	165	178	159	152	164	191	16.5	7.3
수 산 물	174	170	208	211	197	229	16.2	34.7
전 체	1,222	1,366	1,397	1,318	1,249	1,467	17.5	7.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각 연도),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6. 8. 7.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7억 7,3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9.3%,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함.
 - 농산물은 24억 2,9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6.5% 증가함. 과실류, 채소류가 각각 43.6%, 11.2% 감소하였으나, 곡류는 188.9% 증가함.
 - 축산물은 2억 2,7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42.8% 증가함. 포유육류는 40.0%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 낙농품은 각각 18.5%, 16.7% 감소함.
 - 임산물물은 1억 1,700만 달러로 전기 대비 18.2%,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함.
- 2026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9억 2,421만 달러로 전월 대비 7.1%,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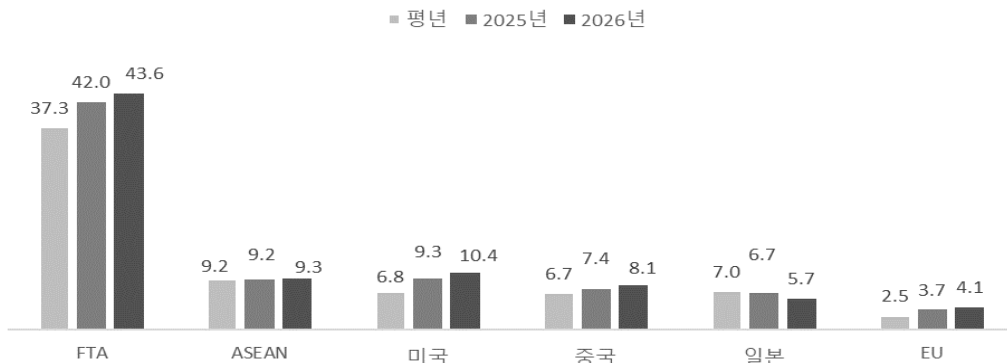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축산물	2,446	2,627	2,597	2,574	2,538	2,773	9.3	5.6
농산물	2,135	2,303	2,289	2,258	2,280	2,429	6.5	5.5
- 곡류	12	34	11	21	9	26	188.9	-23.5
- 과실류	85	64	102	161	110	62	-43.6	-3.1
- 채소류	124	104	89	106	125	111	-11.2	6.7
축산물	225	221	196	209	159	227	42.8	2.7
- 포유육류	11	10	14	14	10	14	40.0	40.0
- 가금육류	28	21	24	30	27	22	-18.5	4.8
- 낙농품	37	36	38	38	42	35	-16.7	-2.8
임산물	85	103	112	108	99	117	18.2	13.6
수 산 물	751	829	854	879	894	1033	15.5	24.6
전 체	3,197	3,456	3,451	3,453	3,432	3,806	10.9	10.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6. 8. 7.

- 2026년 1~6월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4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 상위 5개국(미국, ASEAN, 중국, 일본, EU)의 수출액은 3.8% 증가한 37억 5천만 달러임.

주요 수입대상국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1~6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제14권 제2호.

- 2026년 3/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1.3으로 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²⁾
 - 수출상담·계약(99.1), 설비가동률(97.3), 수출단가(94.4)는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국제물류(56.9)는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22.9%)과 물류비용 상승(20.0%),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15.2%)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2) 한국무역협회(2026), 2026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4.3. 순수입 동향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187만 6천 톤으로 전기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
 - 축산물이 전기 대비 11.5%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3.5%, 4.1% 증가함.

농림축산물 순수입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축산물	11,768	12,339	11,789	11,831	11,540	11,876	2.9	-3.8
농산물	7,983	8,555	8,089	8,286	7,972	8,254	3.5	-3.5
축산물	444	432	446	389	576	510	-11.5	18.1
임산물	3,342	3,354	3,255	3,155	2,991	3,113	4.1	-7.2
수 산 물	1,674	1,439	1,532	1,730	1,313	1,112	-15.3	-22.7
전 체	13,442	13,780	13,322	13,561	12,852	12,988	1.1	-5.7

주: 순수입량은 '수입량-수출량'으로 산출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6. 8. 10.

- 2026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83억 500만 달러로 전기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9% 감소함.
 - 축산물은 전기 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2.8%, 1.8% 증가함.

농림축산물 순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5				2026		증감률	
	1/4	2/4	3/4	4/4	1/4	2/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축산물	8,045	8,556	8,467	7,607	8,553	8,305	-2.9	-2.9
농산물	4,184	4,669	4,430	4,192	4,189	4,306	2.8	-7.8
축산물	2,437	2,469	2,724	2,135	3,073	2,687	-12.6	8.8
임산물	1,424	1,418	1,314	1,279	1,290	1,313	1.8	-7.4
수산물	779	734	753	828	661	564	-14.7	-23.2
전 체	8,824	9,291	9,220	8,435	9,214	8,870	-3.7	-4.5

주: 순수입액은 '수입액-수출액'으로 산출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각 연도), 농식품수출정보, 검색일: 2026.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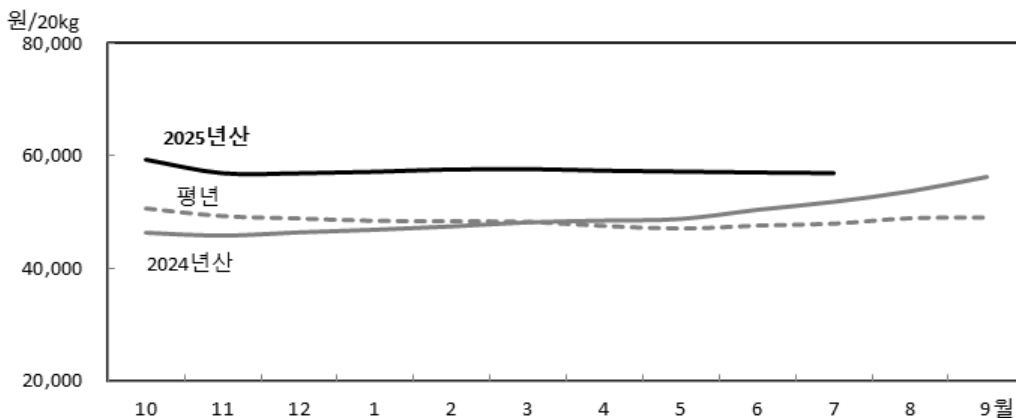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20~2024년산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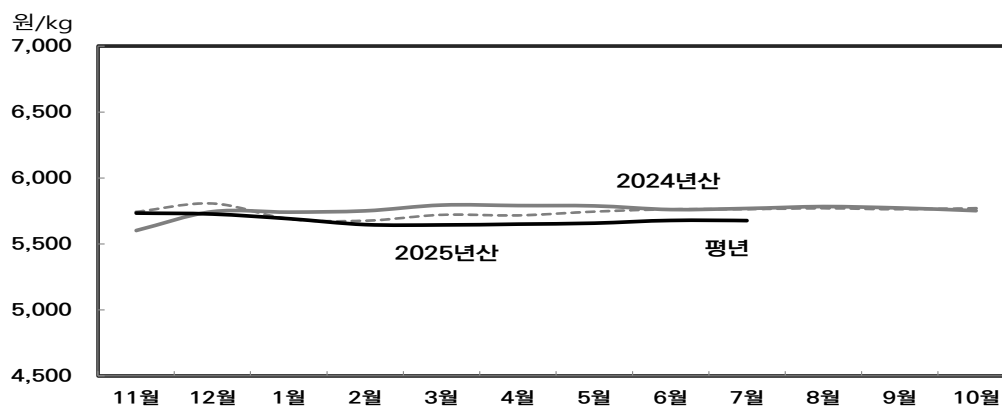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산지 쌀 가격은 5만 7,271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높았으나, 전 분기 대비 0.4% 하락하였음.
 - 2025년산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양곡 공급(3.13.) 이후 순기별 가격은 소폭 하락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한울(phu8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최준혁(wnsgur3385@krei.re.kr), 양성준(seongju@krei.re.kr), 장예원(ywminnie@krei.re.kr), 조동형(haeng@krei.re.kr), 이승준(ls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산지 쌀 가격은 5만 7,006원/20kg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공급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쌀 판매량은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됨.
 - 3분기 쌀 가격은 2026년산 조생종 출하 등으로 2분기 대비 약보합세 전망됨.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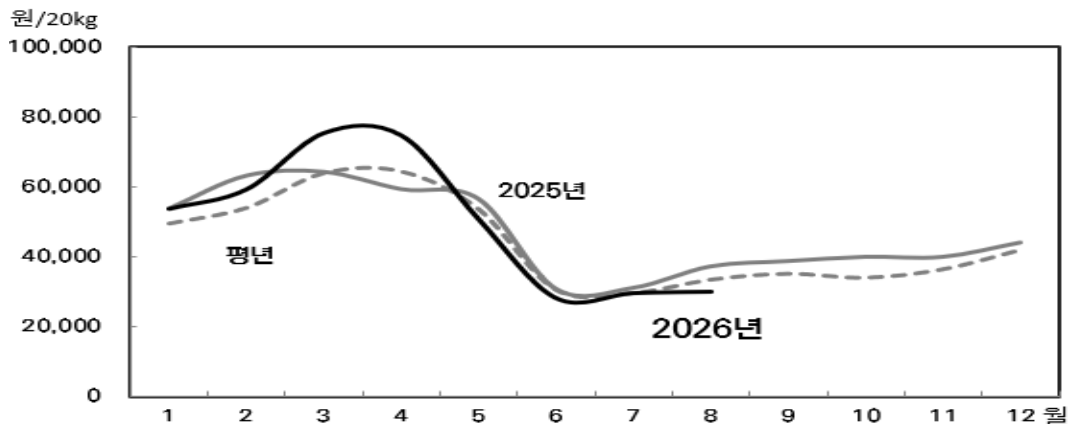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20~2024년산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5,662원/kg으로 전년 동기(5,780원/kg) 대비 2.0% 하락하였으나, 전 분기(5,661원/kg) 대비 0.02% 소폭 상승함.
 - 2025년산 수확기 이후 1분기까지 하락세 보이다 정부 수매가 종료된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됨.
 - 정부 매입량 증가로 인해 시장 공급물량이 감소하였으나, 누적된 정부 재고와 비축 콩 방출에 따른 공급 확대 우려로 전년 동기 약세를 보임.

- 다만, 현재까지 실제 방출 물량이 제한적이고, 방출 대상에 2025년산이 포함되지 않아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5,678원/kg으로 전월 대비 0.02% 하락함.
 - 3분기 콩 도매가격은 정부 비축 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3. 감자

감자(전체,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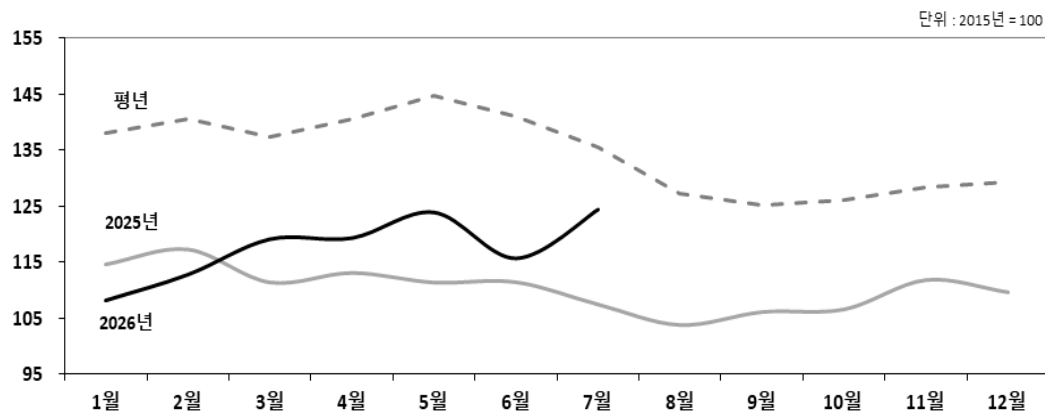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21~2025년의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감자 가락시장 도매가격(전체, 상품)은 51,217원/20kg으로 전년 대비 4.8% 상승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 18.5% 하락함.
 - 시설 봄감자 주산지(김제·부안)의 출하 지연으로 4월까지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강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노지 봄감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 2분기 가격: (4월) 74,827원/20kg, (5월) 50,746원/20kg, (6월) 28,078원/20kg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감자 도매가격(전체·상품)은 29,523원/20kg으로 전년 대비 5.2% 하락하였음.
 - 시장 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품위 저하와 소과 비중 증가로 가격은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됨.
 - 3분기에는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에 따라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 *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8%, 9.6% 증가 전망
 - * 다만, 고랭지감자 추가 생육을 위한 수확시기 지연 및 저장 의향 증가로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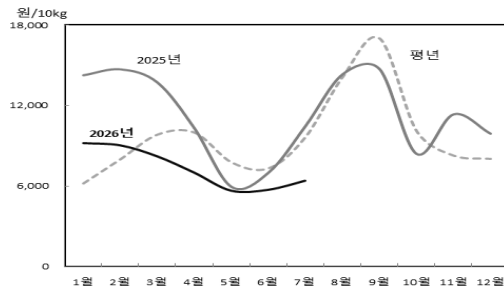
주: 선물가격지수는 근접 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 적용 후 산출, 평년 가격은 2021~2025년의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6년 2분기 동향
 - 2026년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119.7로 전 분기 대비 5.6% 상승함.
 - 주요 곡물 선물가격은 미국 겨울밀 작황 부진과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함. 호르무즈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비료 가격 및 물류비 상승과 여름철 엘니뇨 발생 전망에 따른 2026/27년 주요 곡물 단위 감소 우려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2026년 3분기 전망
 - 2026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100)는 120.8로 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곡물 선물가격은 흑해 지역 분쟁 격화에 따른 곡물 수출 차질과 미국 중서부 및 EU 내 주요 생산지의 폭염·가뭄으로 인한 작황 우려로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4~8월은 웨더마켓 시즌(Weather Market Season: 북반구 주요 생산국의 곡물 생육 시기)으로 주산지의 기상 여건에 따라 곡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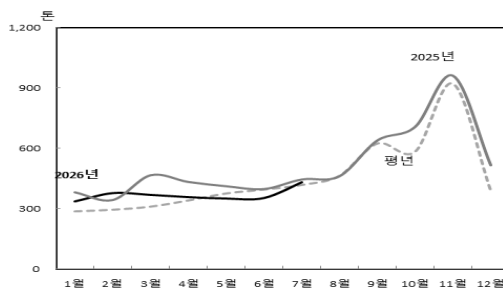
2. 엽근채소²⁾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21~202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배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4월 7,010원/10kg, 5월 5,670원, 6월 5,730원이었음. 2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8%, 28.0% 하락한 6,140원/10kg이었음.
- 봄배추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소비 침체로 월동 저장배추 재고 누적되어 월별 가격이 하락함.
 - * 월동 저장배추 대부분 5월 이전 출하 마무리되나, 금년 소비 부진으로 6월까지 출하
 - * 2026년 시설봄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3만 9천 톤으로 추정됨.
 - * 2,026년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32만 7천 톤으로 추정됨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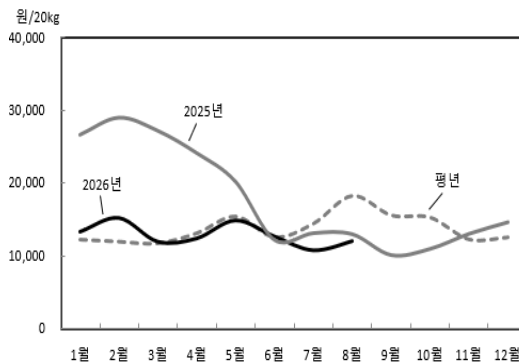
- 2026년 대량수요처 봄배추 저장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3만 7천 톤으로 추정됨.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지선우(bsn02@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윤성욱(yunsw@krei.re.kr) 전문 연구원, 이강민(dkqka196@krei.re.kr), 이상우(today1001@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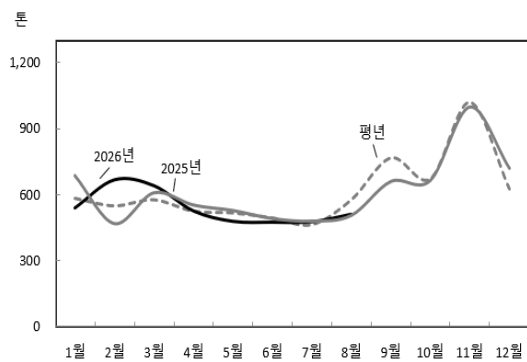
- * 저장기 봄배추 시세 약세 및 여름철 수급 변동을 대비한 대량수요처 수요 늘어 저장량 증가
- 2026년 여름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9%, 7.1% 감소한 25만 7천 톤으로 전망됨.
- * 고온 및 연작 등 재배 어려움으로 재배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0%, 17.1% 감소
- * 정식 이후 기온 하강 등 기상여건 양호하여 단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5%, 12.0% 증가
- 3분기 배추 출하량은 봄배추 저장량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도매가격은 전년(13,190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가을·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
 - 가을·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가을배추 전년도 출하기 시세 강세로 주산지 대부분 재배의향 증가
 - * 전년도 출하기 시세 하락에도 양파, 마늘 등 대체 작목 시세 하락으로 겨울배추로 작목 전환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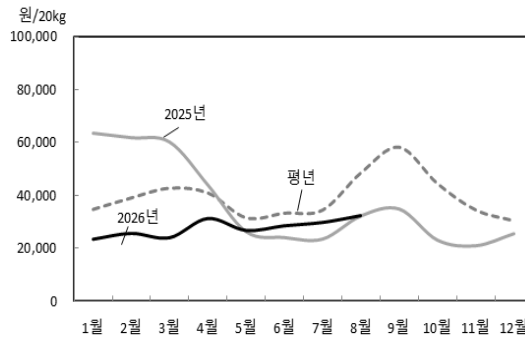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21~202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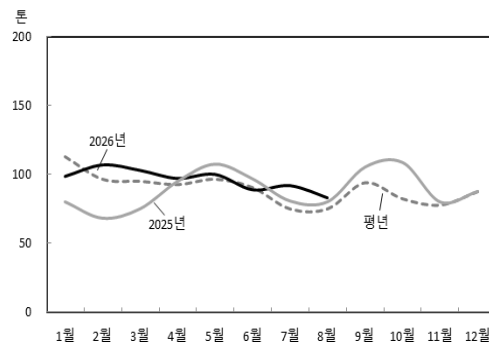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4월 12,380원/20kg, 5월 14,910원, 6월 12,660원이었음. 2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9.3% 하락한 13,320원/20kg이었음.
 - 봄무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겨울무 생산량 및 저장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하였음.
 - * 2025년산 겨울무 저장량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4만 2백 톤
 - * 2분기 가격: (2026년) 13,320원/20kg, (2025년) 18,850원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6년 봄무 저장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여름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26만 9천 톤으로 전망됨.
 - *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2,452ha이며, 단수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977kg/10a로 전망
 - * 생육기 적절한 기상으로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한 수준
 - 3분기 무 출하량은 여름무 생산량이 적으나, 봄무 저장량 증가로 전년 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12,070원/20kg)과 비슷할 전망이다.
- 2026년 가을일반무 · 겨울무 재배의향면적
 - 가을일반무 및 겨울무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무 가격 약세 및 금년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재배의향 감소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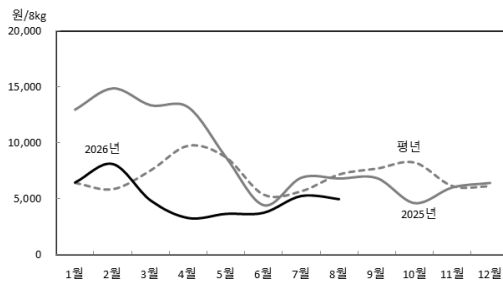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21~202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당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 상품)은 4월 31,440원/20kg, 5월 26,790원, 6월 28,580원이었으며, 2분기 평균은 28,940원/20kg으로 전년(31,360원) 대비 7.7% 하락함.
 - 전년 출하기 및 금년 파종기 가격 약세로 봄당근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함.
 - * 2026년산 봄당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만 7천 톤 내외로 추정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6년산 여름당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만 5천 톤 내외로 전망됨.
 - *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91ha이며, 단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3,090kg/10a로 전망
 - * 생육기 적절한 기상으로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한 수준
 - 3분기 당근 출하량은 봄당근 저장량 및 여름당근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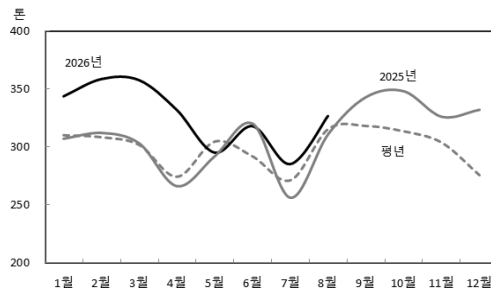
- 3분기 당근 도매가격(상품)은 전년 동기(30,160원/20kg)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가을·겨울당근 재배(의향)면적
 - 가을당근 및 겨울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3.5%, 1.9% 감소한 159ha와 1,815ha로 전망됨.
 - * 전년도 가격 약세로 타작물 전환과 휴경 의향이 증가하였으며, 겨울당근 고온·가뭄 등 기상 여건으로 일부 파종 지연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21~202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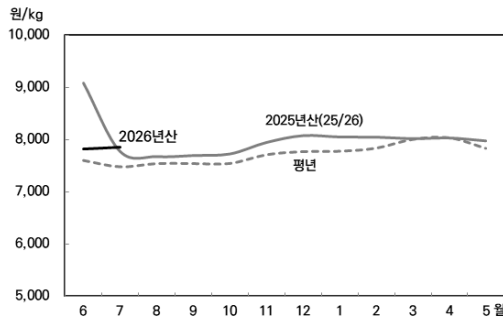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4월 3,310원/8kg, 5월 3,680원, 6월 3,780원이었음. 2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59.3% 하락한 3,590원/8kg이었음.
 - 기상호조로 겨울양배추 생육회복 및 봄양배추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가격은 하락함.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4월 출하량은 전·평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5, 6월은 전년과 비슷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6년 여름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0만 3천 톤으로 전망됨.
 - *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2,254ha이며, 단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4,577kg/10a으로 전망
 - * 전년도 출하기 가격약세로 정선, 태백 등 주산지 재배면적 감소하였으나 고온 및 가뭄 피해있던 전년 대비 낮은 기온과 적절한 강우로 생육 양호
 - 3분기 양배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가 전망되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전망됨.
- 2026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671ha로 전망됨.
 - * 전년도 가격 약세로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윤작의향과 마늘 등 작목전환으로 재배면적 감소
- 2026년산 겨울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겨울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3,025ha로 전망됨.
 - * 연작피해와 출하기 가격약세로 제주 중심으로 콜라비, 브로콜리, 적채 및 양채류로의 전환의향 증가, 호남지역 재배의향 전년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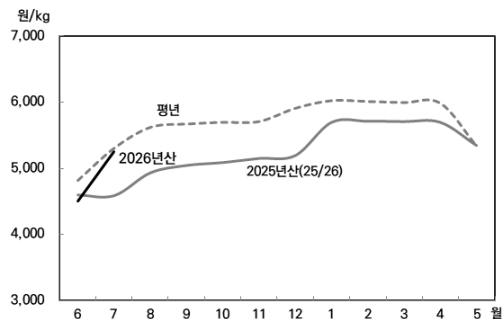
3. 양념채소³⁾

3.1.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21년 6월~2026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상품 kg)은 출하가능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1% 하락한 7,940원이었음.
 - * 간마늘 도매가격(원/kg): (금년) 7,940, (전년) 8,840, (평년) 7,820
 - * 월별 도매가격(원/kg): (4월) 8,030, (5월) 7,980, (6월) 7,820
- 2026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26년산 마늘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4.0% 감소, 평년 대비 5.9% 감소한 28만 1천 톤임.
 - * 재배면적: 전년 대비 0.4% 증가, 평년 대비 2.6% 감소한 22,938ha
 - * 단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4%, 3.4% 감소한 1,223kg/10a
 - * 늦은 파종 영향으로 전반적인 작황이 부진하였고, 수확기 고온 및 강우로 저품질 물량이 증가하였음.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신성철(ssc0729@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전문연구원, 김명은(mekim@krei.re.kr), 김도현(noey@krei.re.kr), 오병무(dhqudan99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품종별로 난지형 대서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면적 증가), 난지형 남도종은 14.2% 감소(면적 및 단수 감소), 한지형은 8.1% 감소(면적 및 단수 감소)로 추정됨.

2026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6	22,938	1,223	280,574
2025	22,837	1,280	292,330
평년	23,543	1,266	298,156
전년 대비	0.4	-4.4	-4.0
평년 대비	-2.6	-3.4	-5.9

주: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 의향
 - 입고량 모형 분석 및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202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계획)량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9만 톤 내외로 전망됨.
 - 2026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4,200원/kg 내외) 대비 높은 4,600원/kg 내외로 조사됨.

2026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계획)량

단위: 천 톤, %

연산	생산량	입고(계획)량
2026	280.6	89.8
2025	292.3	96.0
평년	298.2	95.3
전년 대비	-4.0	-6.5
평년 대비	-5.9	-5.8

주: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갯마늘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한 7,860원/kg(상품)이었음.
 - * 7월 도매가격(원/kg): (금년) 7,860, (전년) 7,780, (평년) 7,480
 - 3분기 갯마늘 도매가격은 2026년산 생산 감소로 전년 동기(7,720원)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2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 2027년산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0.6% 증가하나, 평년 대비 1.5% 감소한 23,082ha 수준 전망함.
 - * 한지형 마늘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3,878ha, 난지형 마늘은 1.2% 증가한 19,205ha 전망함.

202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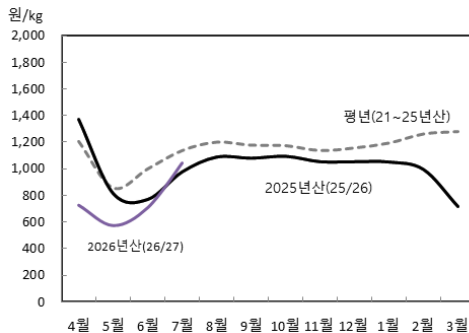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7	3,878	19,205	23,082
2026	3,956	18,982	22,938
평년	4,313	19,113	23,426
전년 대비	-2.0	1.2	0.6
평년 대비	-10.1	0.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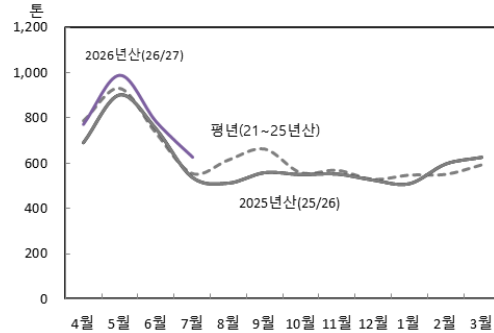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2~2026년산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3.2.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국산)



주: 평년 자료는 2021년 4월~2026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2025년산 재고량 증가와 202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32.2% 하락한 상품 kg당 670원이었음.
 - * 양파 평균 도매가격(원/kg): (금년) 670, (전년) 980, (평년) 1,020
 - * 월별 상품 도매가격(원/kg): (4월) 720, (5월) 570, (6월) 710
- 2026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 2026년산 양파 생산량은 단수 증가에도 재배면적 감소, 산지폐기 시행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6만 톤으로 추정됨.
 -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큰 폭의 단수 증가에도 산지폐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3.0% 적은 104만 8천 톤 수준으로 추정됨.

2026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6	16,461	7,656	1,260,352
2025	18,203	7,119	1,295,811
평년	18,237	6,889	1,256,321
전년 대비	-9.6	7.6	-2.7
평년 대비	-9.7	11.1	0.3

주 1) 조생종, 중만생종 출하정지 면적을 고려한 수치

2)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입고 의향
 - 202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입고(계획)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5%, 1.6% 감소한 64만 4천 톤 내외로 추정됨. 이는 생산량 감소, 최근 저장기 가격 하락으로 표본 저장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입고 의향 감소한 영향임.
 - 2026년산 저장양파 첫 출고시기는 출하가 지연되었던 전년 대비 빠른 것으로 파악됨.

2026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계획)량

단위: 천 톤, %

연산	중만생종 생산량	입고(계획)량
2026	1,048	644
2025	1,081	674
평년	1,047	655
전년 대비	-3.0	-4.5
평년 대비	0.1	-1.6

주: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에도 크기가 큰 양파 공급 물량 감소로 전년(970원) 대비 상승한 1,040원/kg임.
 - 3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공급가능물량 감소로 전년(1,050원) 대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양파 품위별로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202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 202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15,974ha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3%, 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25~2026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일손 부담이 적은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고려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 재배의향 미정인 농가는 종자 및 모 구입 전까지 양파 가격과 재고 상황,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임. 이후 육묘 기간에도 기상에 따른 변수 많아 실제 재배면적은 변동 가능함.

202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7	2,801	13,174	15,974
2026	2,904	14,148	17,052
평년	2,967	14,932	17,900
전년 대비	-3.6	-6.9	-6.3
평년 대비	-5.6	-11.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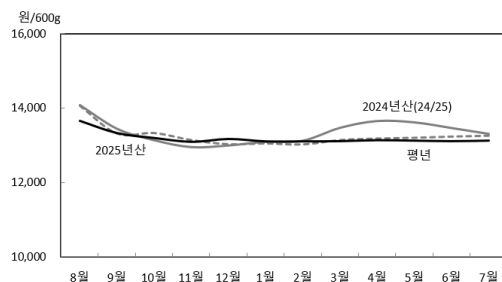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22년~2026년산 품종별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2) 2022년과 2026년 재배면적은 산지폐기 전 재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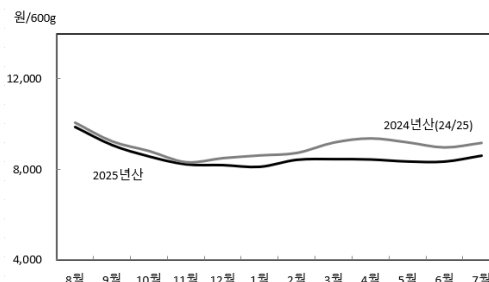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3.3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손꼭무 산지가격 동향



주 1) 평년 가격은 2020년 8월~2025년 7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산지가격은 평균 단가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은 2025년산 재고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3%, 0.6% 감소한 13,100원임.
 - * 건고추 도매가격(원/600g): (금년) 13,100 (전년) 13,600 (평년) 13,200
 - * 월별 도매가격(원/600g): (4월) 13,100, (5월) 13,100, (6월) 13,100
 -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산지 평균가격은 9,600원으로 전년 대비 6.6% 하락함.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은 전월 대비 하락한 13,100원임.
 - 3분기 건고추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산 건고추 생산 전망
 - 2026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8%, 평년 대비 9.0% 감소한 25,287ha임.
 - 초기 생육 지연되었으나, 이후 기온 상승과 강우로 가뭄 해소되어 생육 회복
 - 2026년산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고 평년 대비 1.7% 감소한 6만 1천 톤 내외 전망됨(7월 말 기준).

2026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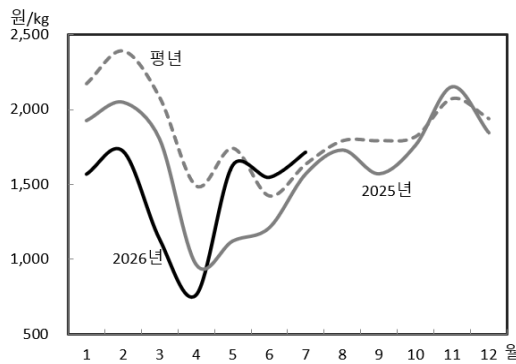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6	25,287	240	60,613
2025	25,743	236	60,753
평년	27,777	230	61,647
전년 대비	-1.8	1.6	-0.2
평년 대비	-9.0	4.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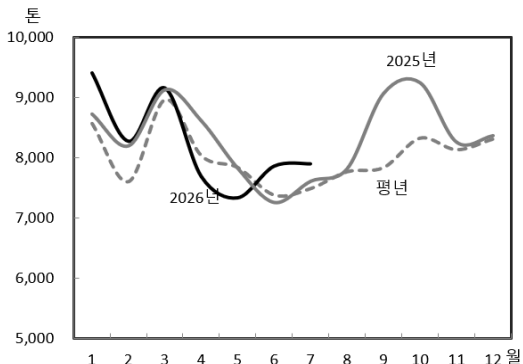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업관측센터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21년 1월~2025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대파 2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큰 일교차로 인한 생육 지연 발생과 주산지 이동으로 인한 물량 공백으로 전년(1,100원) 대비 상승, 평년(1,600원) 대비 하락한 1,310원임.

* 대파 도매가격(원/kg): (금년) 1,310, (전년) 1,100, (평년) 1,600

* 월별 도매가격(원/kg): (4월) 760, (5월) 1,630, (6월) 1,550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주산지 이동으로 인한 물량 공백 우려로 전년(1,570원)보다 높은 1,720원/kg임.
 - 강원지역 고랭지 대파 재배면적은 출하기(8월~10월) 품위 저하와 도매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음.
 - 2026년 3분기 도매가격은 여름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병해충 및 연작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해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26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출하기(12월~익년 4월) 도매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강원지역 지역별 고랭지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철원	평창	홍천	양구	기타	전체
-2.9	-7.9	-1.6	-1.1	-3.8	-3.6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6년산 전남지역 지역별 겨울대파 재배면적

단위: %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1.2	-9.5	-1.6	-4.9	-4.2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6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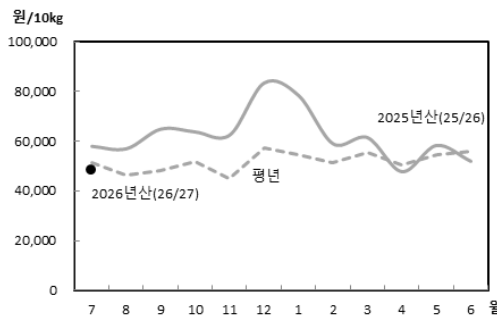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26	3,286
2025	3,429
평년	3,238
전년 대비	-4.2
평년 대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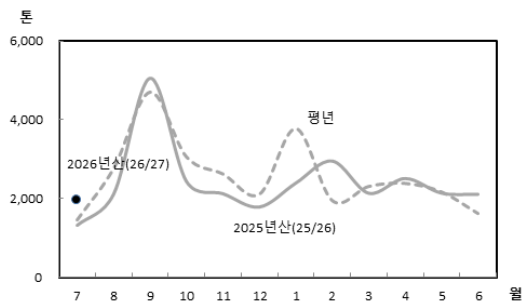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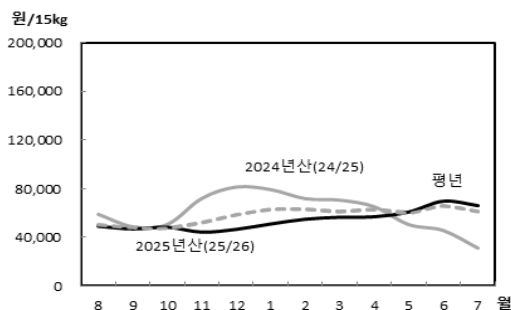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27.3%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5% 하락한 52,700원/10kg이었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후지 도매가격은 저장사과 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17.3% 하락한 40,700원이었음. 7월 햇사과(쓰가루)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37.5% 늘어 전년 대비 16.5% 하락한 48,400원/10kg이었음.
 - 8월 사과 출하량은 조·중생종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홍로 생육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금년 추석(9.25.)은 전년(10.6.)보다 빨라 홍로 출하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전문연구원, 손우영(wysohn25@krei.re.kr), 정태호(static_ho@krei.re.kr), 김채은(eve152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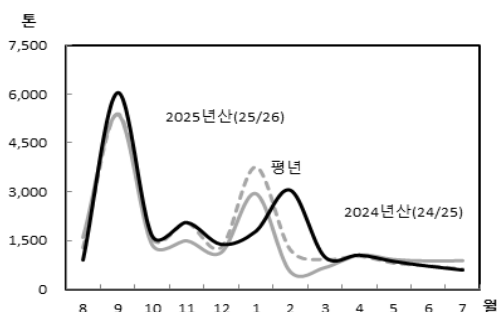
- 9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추석 성수기가 전년보다 빨라 출하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됨.
- 2026년 생산량 전망
 - 2026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44만 8천 톤) 및 평년(47만 5천 톤) 대비 각각 8.7%, 2.6% 증가한 48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단수도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 생산량도 전반적인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추석용 사과인 홍로 생산량은 열매수가 증가하였고 생육도 좋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20~202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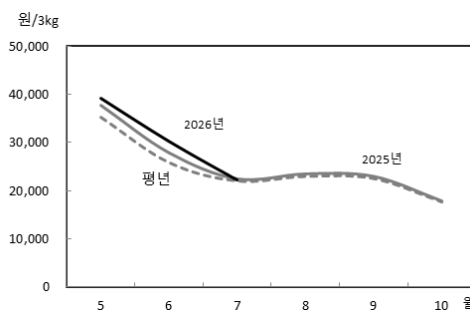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9.0% 감소하여 전년 대비 16.4% 상승한 62,800원/15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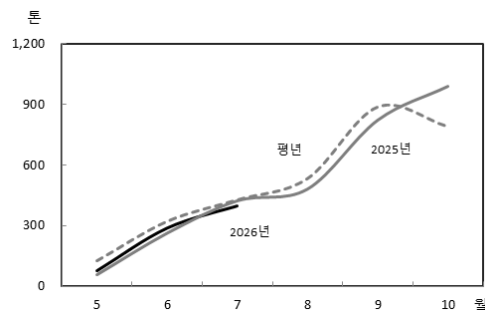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감소(34.0%)하였고, 품위 저하로 가격이 낮았던 전년 대비 110.3% 상승한 66,400원/15kg이었음.
 - 8월 햇배(원황) 출하량은 전년에는 저장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출하 지연되었으나, 금년에는 대과 물량 부족으로 저장배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전년보다 조기 출하되고 출하량도 전년 대비 1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9월 이후 출하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금년 햇배 품질은 생육기 기상 여건이 좋고 대과 생산을 위해 열매수를 줄여 크기, 모양, 당도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7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열매 성장 지연, 햇별 데임 등 고온 피해 증가 우려됨.
- 2026년 생산량 추정
 - 2026년 배 생산량은 전년(19만 7천 톤) 대비 1.3% 증가한 20만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기상 여건 호조로 단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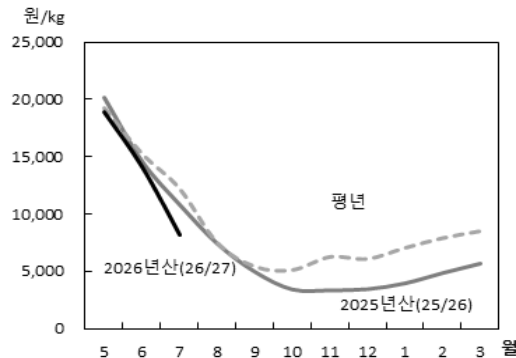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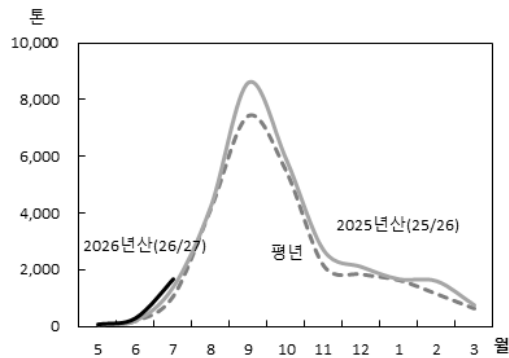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5~6월 하우스감귤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생산량이 늘어 반입량이 14.3% 증가하였으나, 품질 양호하여 전년 대비 5.6% 상승한 34,700원/3kg이었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감귤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수박·복숭아·포도 등 여름철 대체 과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 낮은 22,300원/3kg이었음.
 - 8월 하우스감귤 출하량은 가온 시기 지연 영향과 하우스감귤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8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3,500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노지감귤 열매수
 - 노지감귤 단위면적(10a)당 열매수는 기상 여건 양호로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시는 정상 착과가 이루어지면서 열매수가 증가하나, 서귀포시는 해저리 영향으로 열매수가 감소함. 서귀포시 열매수는 생육 초기 기상이 좋아 전년 대비 감소폭 작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큼.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21~202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9월 캠벨얼리(3kg), 10월~익년 3월 샤인머스켓(2kg)을 원/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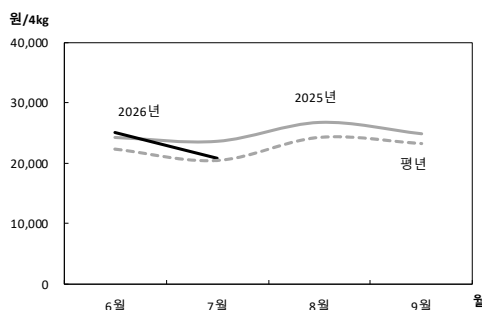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2분기 포도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36.9% 증가하여 전년 대비 4.6% 하락하였음.
 - 델라웨어(5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5.8% 하락한 37,900원/2kg이었으며, 거봉(6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2.9% 하락한 28,400원/2kg이었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포도 전체 반입량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고, 도매가격은 하락하였음.
 - 7월 거봉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4.1% 하락한 16,400원/2kg이었으며, 캠벨얼리는 15.1% 하락한 29,300원/3kg, 샤인머스켓은 16.3% 하락한 18,200원/2kg이었음.
 - 8~9월 포도 출하량은 캠벨얼리·거봉은 재배면적이 늘고, 샤인머스켓은 성목화 및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8월에 출하될 포도 품질은 전반적으로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좋을 것으로 예측됨.

- 2026년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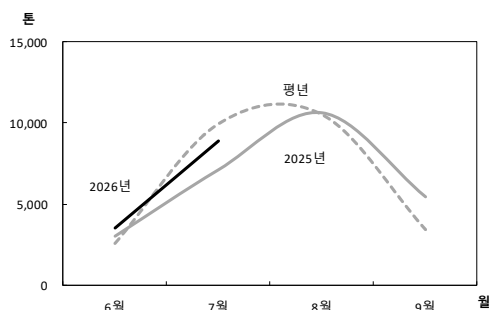
- 2026년 포도 생산량은 전년(21만 5천 톤) 대비 1.4% 감소한 21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단수는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작형별로 시설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5.2% 증가하나, 노지 포도는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3) 2021년 이전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가격은 4.5kg을 4kg으로 환산한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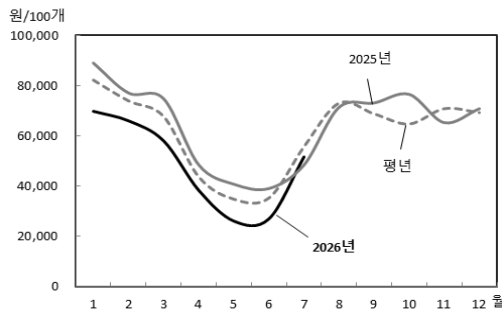
- 6월 천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3.8% 상승한 25,100원/5kg이었음. 생육기 기상 여건 양호로 품위가 상승하여, 반입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은 소폭 상승함.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복숭아 타 품종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5% 하락한 33,400원/10kg이었음. 백도(유모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5% 하락한 20,900원/4kg이었음. 복숭아 전체 반입량(가락시장)은 수확기 강우량 감소와 양호한 생육 여건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음.
 - 8월 출하량은 기상 여건 양호로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천도계는 1.7%, 유모계는 6.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당도와 색택 등 전반적인 품질은 전년보다 양호하나, 열매 크기는 다소 작을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생산량 전망
 - 2026년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18만 4천 톤) 대비 12.6% 증가한 20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나, 유목의 성목화로 성목면적이 증가하였고 생육 상황도 좋아 단수는 전년 대비 16.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 천도계가 전년 대비 4.7%, 유모계는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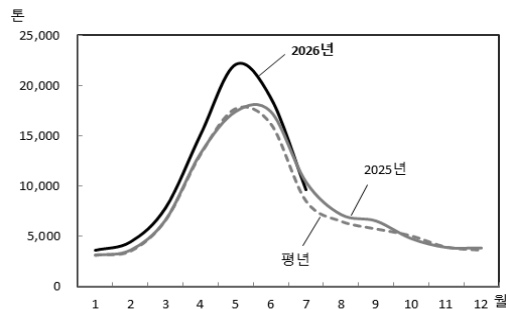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백다다기오이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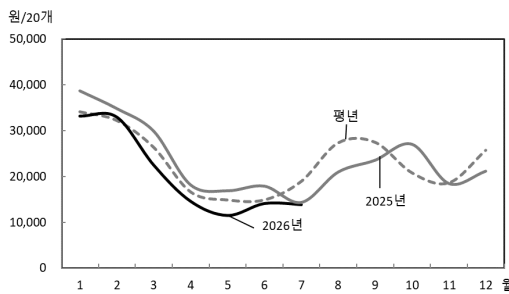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8,400원/100개, 5월 26,200원, 6월 27,1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30,600원/100개로 전년(42,800원) 대비 28.6% 하락하였음.
 - 2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산지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여건(일조량 증가 등)이 양호하고, 병해충 및 바이러스 발생 감소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충청지역(천안 등)에서 침수피해 발생과 강원지역(홍천 등)에서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한 51,700원/100개이었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선우(opendoyon@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전문연구원, 강지원(kjw05@krei.re.kr), 박지민(qkrwlals520@krei.re.kr), 김지영(jiyeong0317@krei.re.kr), 김채은(eve152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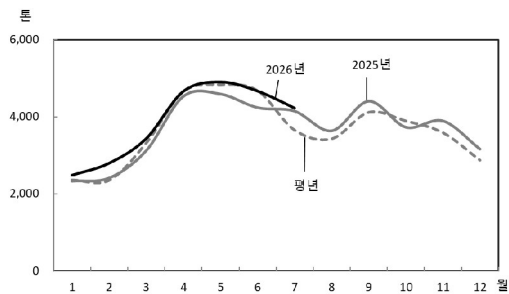
- 8~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산지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충청·영남 지역에서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 감소로 전년 대비 생육이 양호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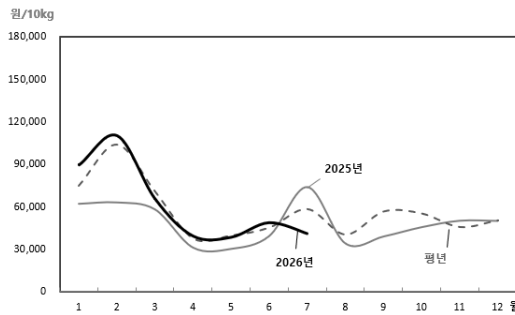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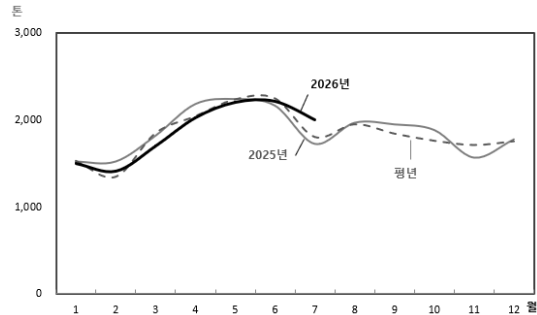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4,600원/20개, 5월 11,600원, 6월 14,2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17,600원) 대비 23.7% 하락한 13,500원/20개이었음.
 - 2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영남·충청지역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기상 여건(일조량 증가 등) 양호 및 병해충 감소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산지인 강원지역 재배면적 증가 및 병해충 피해 감소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14,300원) 대비 2.9% 낮은 13,900원/20개이었음.
 - 8~9월 애호박 출하량은 강원·경기지역 재배면적 증가 및 바이러스 감소로 작황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청양계풋고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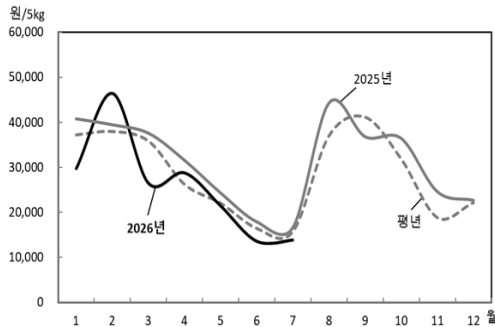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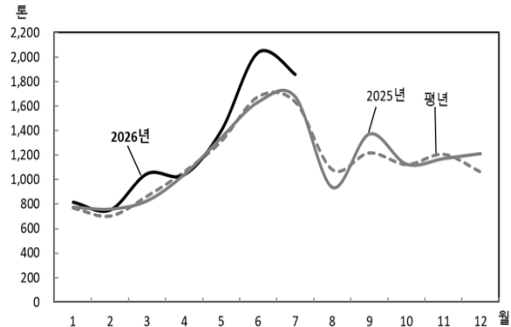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8,900원/10kg, 5월 38,000원, 6월 48,4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33,600원) 대비 24.2% 상승한 41,800원/10kg이었음.
 - 이는 주산지인 경남지역에서 병해충(충채벌레) 발생 증가로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44.8% 낮은 40,700원/10kg이었음. 이는 출하가 시작되는 강원지역에서 기상 여건 호조(5~6월 평균기온 하락 등)로 고온 피해가 감소하여 작황이 양호하였기 때문임.
 - 8~9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감소하고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빨강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빨강 파프리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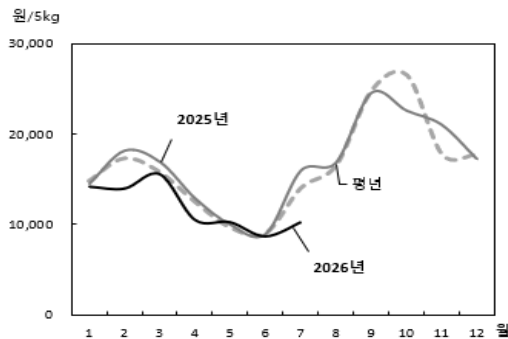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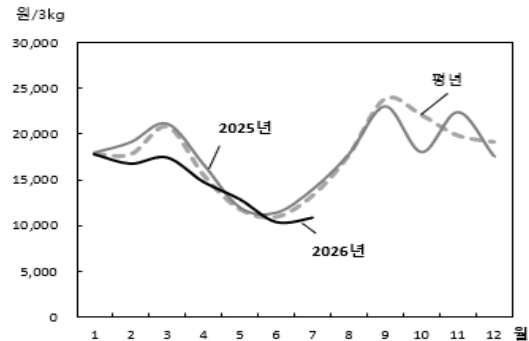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28,800원/5kg, 5월 21,500원, 6월 13,6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24,500원) 대비 13.1% 하락한 21,300원/5kg이었음.
 - 2분기 빨강 파프리카 반입량은 주산지 강원지역(철원 등)에서 기상 여건 호조(일조량 증가, 강수량 감소 등)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병충해 및 바이러스 감소로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16,600원) 대비 16.3% 하락한 13,900원/5kg이었음.
 - 8~9월 빨강 파프리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고온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기상 여건(평균 기온 하락 등)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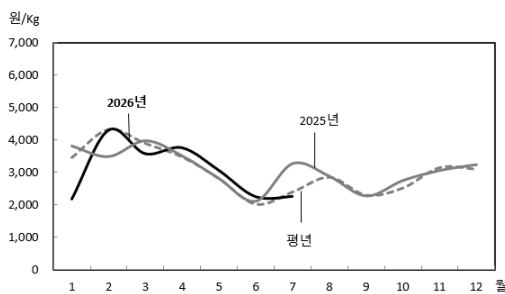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0,400원/5kg, 5월 10,200원, 6월 8,6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9,800원/5kg으로 전년 동기(10,600원) 대비 8.4% 하락하였음.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4,700원/3kg, 5월 12,800원, 6월 10,3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13,400원) 대비 5.4% 낮은 12,600원/3kg이었음.
 - 일반토마토와 대추형방울토마토의 2분기 반입량은 생육기 기상 여건 호조(일조시간 증가, 평균기온 상승 등)로 전국 출하량은 늘었으나, 5월 대형유통업체 행사(농할)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와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36.4%, 22.5% 하락한 10,200원/5kg, 10,800원/3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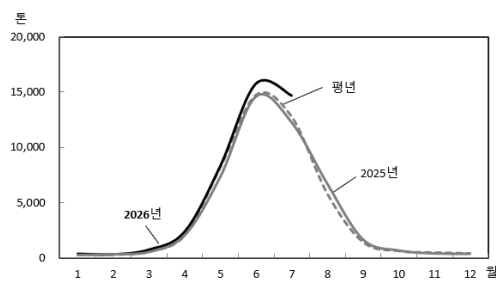
- 8~9월 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인 강원지역 등에서 재배면적이 늘고, 고온 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6.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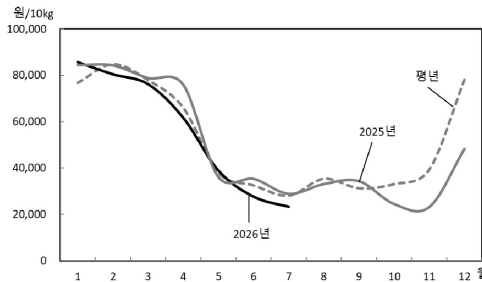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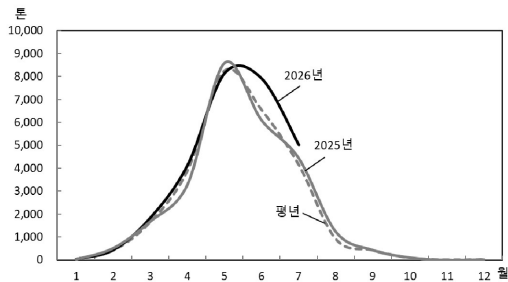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800원/kg, 5월 3,100원, 6월 2,200원 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2,800원) 대비 7.5% 상승한 3,000원/kg이었음.
 - 2분기 수박 반입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였음.
 - 소비지 기온 상승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 반입량 증가에도 가격 상승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산지 재배면적 확대로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3,300원) 대비 31.3% 하락한 2,300원/kg
 - 8~9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도 출하기와 1기작 출하기(5~6월)에 시세가 높아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5.7.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6년 2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61,800원/10kg, 5월 39,000원, 6월 27,7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49,300원) 대비 13.0% 하락한 42,900원/10kg이었음.
 - 2분기 참외 반입량은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음.
- 2026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일조시간 증가로 착과량이 많았으며, 장마로 인한 생육 피해가 전년 대비 적어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29,000원) 대비 19.4% 하락한 23,400원/10kg이었음.
 - 8~9월 참외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성주지역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농가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한 출하 기간 연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⁶⁾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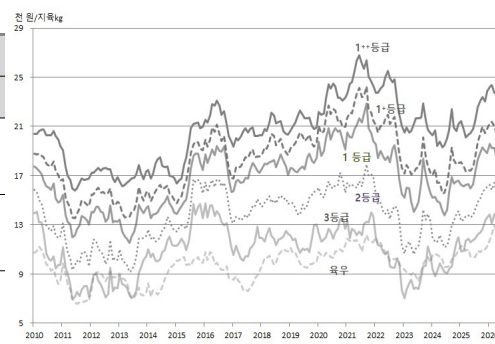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농장, 천 마리

구분	25년				26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o
사육 농장 수	81	79	79	77	77	76
총 마릿수	3,384	3,460	3,465	3,368	3,257	3,289
가임 암소	1,595	1,586	1,620	1,596	1,545	1,538

주: 2026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6년 2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346만 마리)보다 4.9% 감소한 328만 9천 마리(2026년 3월 대비 1.0% 증가)이었음.
 -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315만 4천 마리, 육우 13만 6천 마리
 - * 한우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158만 6천 마리) 대비 3.3% 감소한 153만 8천 마리
 - 2분기 한우 평균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17,175원) 대비 19.0% 상승한 20,431원/kg, 전기(20,755원) 대비 1.6% 하락, 평년(17,416원) 대비 17.3% 상승했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봉희(hanbh@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김태환(kimth3368@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전문연구원, 김정희(kjh505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6년 3분기 전망
 - 2026년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332만 8천 마리) 대비 3.5% 감소한 321만 3천 마리로 전망됨.
 - 2026년 3분기 한우 평균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19,117원) 대비 상승한 22,500원/kg 내외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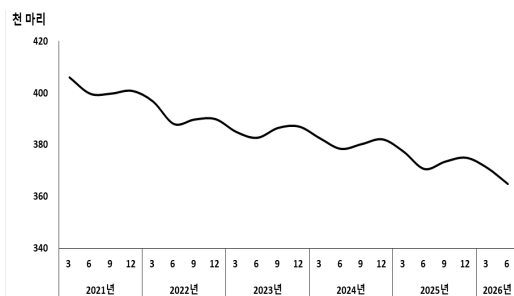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구분	2025년(A)	2026년	2026년(B)	B/A
사육 마릿수	9월 332만 8천 마리	6월 320만 7천 마리	9월 321만 3천 마리	-3.5%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3분기 19,117원	2분기 20,431원	3분기 22,500원 내외	17.7%

주: 2026년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한육우 6월호 전망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6월호(2026.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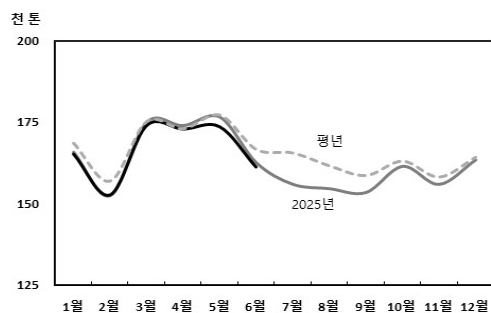
6.2. 젓소

젓소 사육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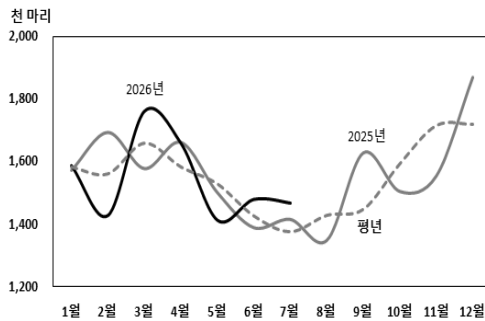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낙농진흥회

- 2026년 2분기 동향
 - 6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37만 1천 마리) 대비 1.6% 감소한 36만 5천 마리, 착유우 마릿수는 18만 7천 마리로 전년(19만 1천 마리) 대비 2.3% 감소함.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마릿수는 감소로 전년(51만 3천 톤) 대비 1.1% 감소한 50만 8천 톤 내외로 추정됨.
- 2026년 3분기 전망
 - 9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1% 내외 감소한 37만~37만 2천 마리, 착유우는 전년 대비 1.0% 내외 감소한 19만 1천~19만 2천 마리로 전망됨.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0.4% 내외 감소한 46만 1천~46만 3천 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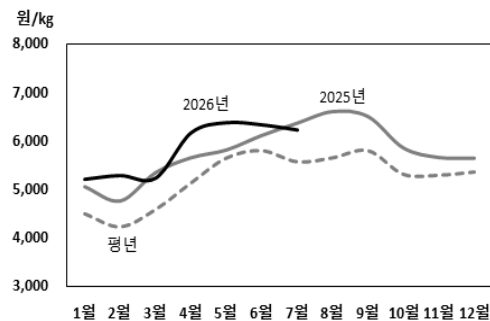
6.3. 돼지

돼지 도축 마릿수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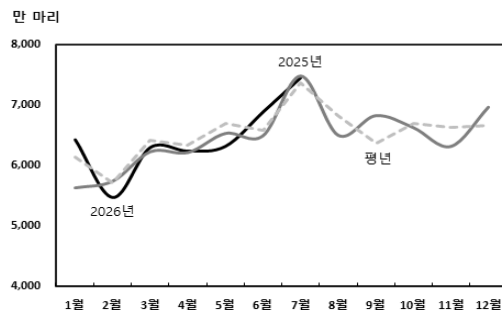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6년 2분기 동향
 - 6월 말 기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전년(1,182만 마리) 대비 1.0% 감소한 1,170만 마리가었음. 이 중에서 모돈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며, 자돈은 전년 대비 0.4% 감소함. 육성돈과 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각각 1.4%, 1.2% 감소함(이력제 기준).

- 2분기 돼지 도축 마릿수는 3~4개월 전 육성돈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출하 가능한 비육돈 마릿수 감소 폭이 크지 않았고 낮은 체중에서도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56만 마리가었음.
- 2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할인행사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5,847원) 대비 7.8% 상승한 6,303원/kg이었음.
- 2026년 3분기 전망
 - 3분기 돼지 도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및 작업 일수 감소로 전년(439만 마리) 대비 2.2% 감소한 423만~435만 마리 내외로 전망됨.
 - 3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하지만, 2025년 소비쿠폰 지급의 기저효과로 전년(6,488원) 대비 2.1% 하락한 6,250~6,450원/kg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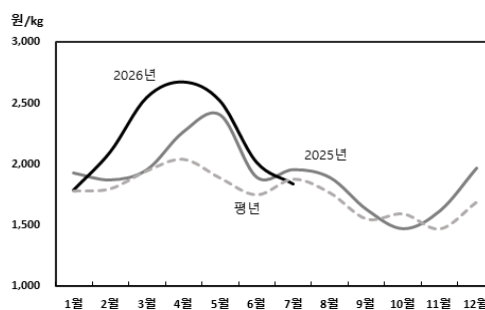
6.4. 육계

육계 도축 마릿수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26년 2분기 동향
 - 2026년 4~6월(말일 기준) 종계 성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490만 5천 마리가었음.
 - 2분기 육계 일평균 도축 마릿수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하였으나, 수입종란 공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271만 8천

마리이었음.

- 2분기 평균 생계유통가격은 일평균 도축 마릿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분육 재고량 감소 및 대답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10.0% 상승한 2,406원/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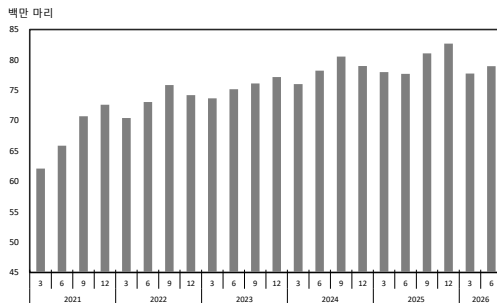
• 2026년 3분기 전망

- 3분기 육계 일평균 도축 마릿수는 종계 성계 생산성 회복 및 수입 종란 공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294만 마리로 전망됨.
- 3분기 생계유통가격은 일평균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1,823원) 대비 하락 전망됨.

* 단, 여름철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성 저하될 경우 생계유통가격은 변동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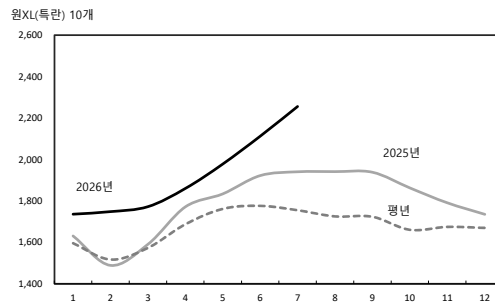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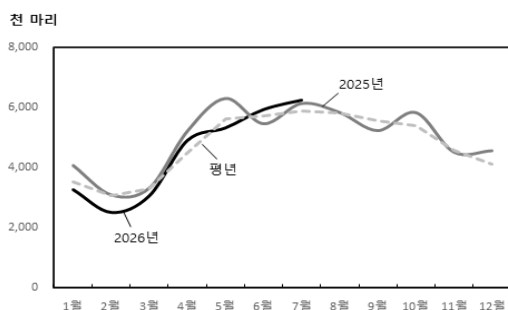
• 2026년 2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7,899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5,618만 마리이었음.

- 2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1,557만 마리,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대비 9.0% 감소한 707만 마리아였음.
- 2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1,842원/특란 10개) 대비 7.7% 상승한 1,983원이었음.
- 2026년 3분기 전망
 - 3분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5,769만 마리) 대비 0.6% 증가한 5,805만 마리로 전망됨.
 - 3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1,940원) 대비 높으나, 7월(2,256원) 이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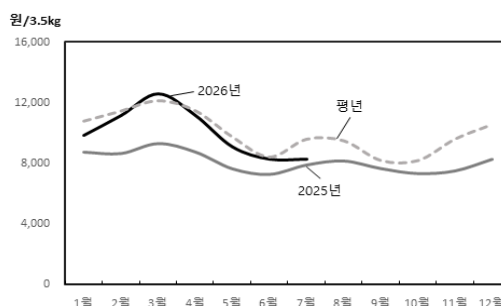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축 마릿수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21~202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6년 2분기 동향
 -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한 945만 1천 마리,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65만 4천 마리로 전년 대비 14.4% 감소, 육용오리는 879만 7천 마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함.

- 2분기 육용오리 도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1,614만 1천 마리가었음.
- 2분기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육용오리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20.9% 상승한 9,517원/생체 3.5kg이었음.
- 2026년 3분기 전망
 - 3분기 육용오리 도축 마릿수는 육용오리 사육 및 입식 마릿수 감소로 전년 (1,898만 마리)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육용오리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7,883원/3.5kg)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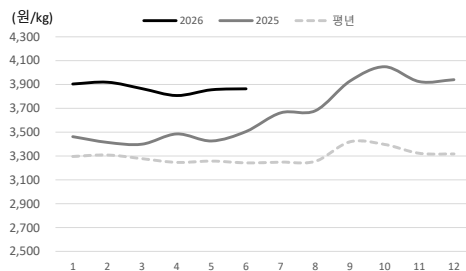
Ⅳ. 주요 농축산물 소비 동향 및 의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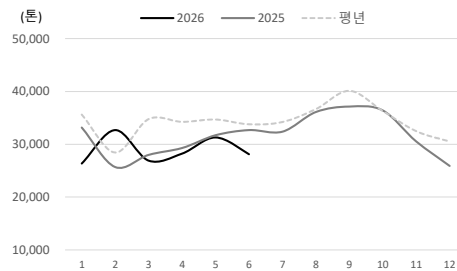
1. 주요 품목별 소비 동향¹⁾²⁾

1.1. 쌀

쌀 판매가격



쌀 판매량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 2/4분기 쌀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0.6% 상승한 kg당 3,842원이었음.
 - 전년산 재고량 감소와 유류비 및 포장재비 상승으로 2분기 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다만, 1차 정부 양곡 공급(3.13.) 이후에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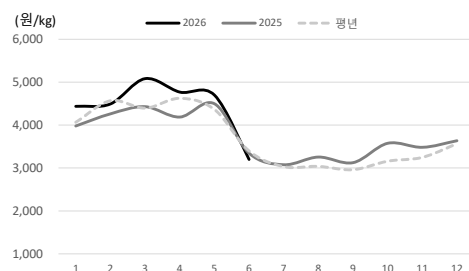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형용(lhy2813@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전문위원, 정세미 전문연구원(wjdtpal55@krei.re.kr), 양혜지 연구원(yanghj304@krei.re.kr)이 작성함.

2) 소비 동향 부문은 농업관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마켓링크를 통해 수집된 소매유통업체 POS data를 기반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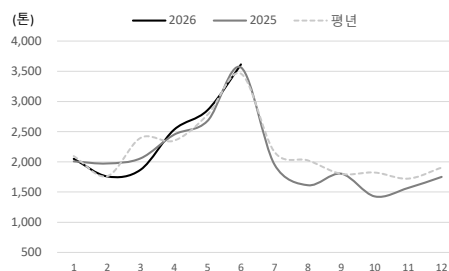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쌀 판매량은 식용 공급량 감소 및 판매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8만 7,625톤이었음.
- 2026년 2/4분기 쌀 판매액(명목)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143억 원으로 추정됨.
 - 실질 판매액³⁾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2,692억 원으로 추정됨.

1.2. 감자

감자 판매가격



감자 판매량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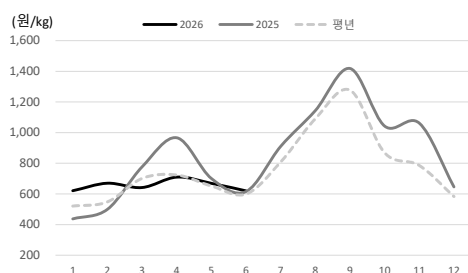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감자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5.3% 상승한 kg당 4,224원이었음.
 - 저장감자 소진과 시설 봄감자 출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4월 감자 가격이 높았으나, 이후 시설 봄감자와 노지 봄감자 출하가 확대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됨.
- 2026년 2/4분기 감자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005톤이었음.
 - 5월 이후 봄감자 출하 확대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자 판매량은 전년보다 증가함.

3) 실질 판매액은 명목 판매액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국가데이터처)로 나눈 것임.

- 2026년 2/4분기 감자 판매액(명목)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68억 원으로 추정됨.
 -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247억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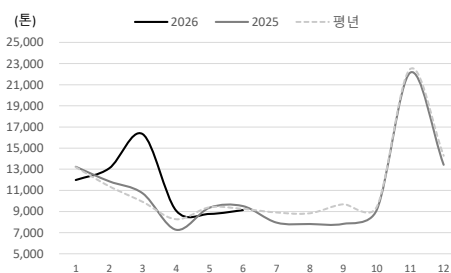
1.3. 배추

배추 판매가격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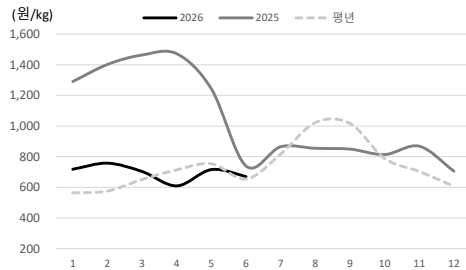
배추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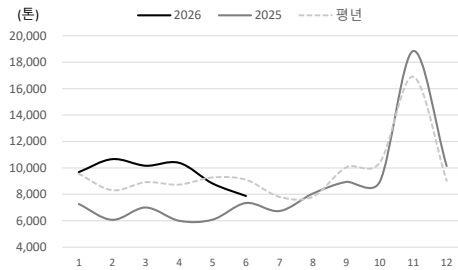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배추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2.4% 하락한 667원/kg이었음.
 - 저장배추 재고량 증가와 4~5월 시설 봄배추 출하 확대로 2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2026년 2/4분기 배추 판매량은 판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26,991톤이었음.
- 2026년 2/4분기 배추 판매액(명목)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183억 원으로 추정됨.
 - 반면,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209억 원으로 추정됨.

1.4. 무

무 판매가격



무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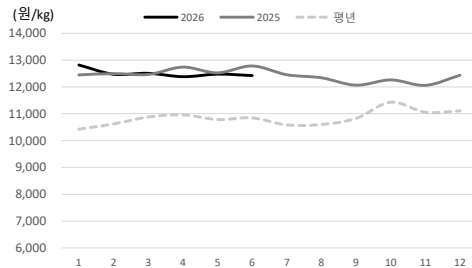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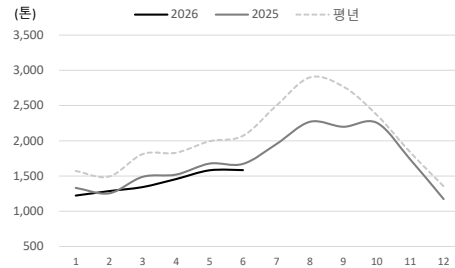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무 판매가격은 kg당 665원으로 전년 대비 42.2% 하락함.
 - 겨울 저장무 출하량 증가로 4~5월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소매 판매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2/4분기 무 판매량은 판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27,093톤이었음.
- 2026년 2/4분기 무 판매액(명목)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 대비 18.6% 감소한 172억 원으로 추정됨.
 - 반면,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91억 원으로 추정됨.

1.5. 김치

김치 판매가격



김치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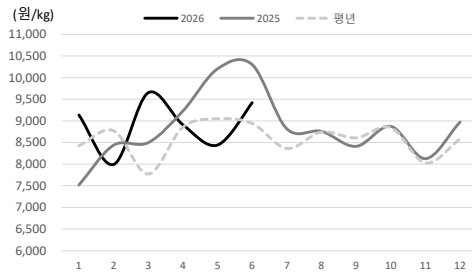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 2/4분기 김치 판매가격은 12,428원/kg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단,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김치 가격이 높았던 전년보다는 약보합세를 보임.
- 2026년 2/4분기 김치 판매량은 평년 대비 21.6% 감소한 4,621톤이었음.
 - 판매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판매량은 평년 대비 감소함.⁴⁾ 소매유통업체 오프라인 김치 판매량은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2/4분기 김치 판매액(명목)은 판매량 감소로 평년 대비 9.6% 감소한 604억 원으로 추정됨.
 -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446억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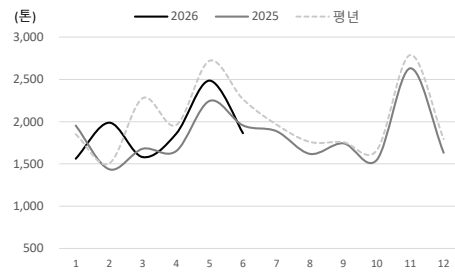
4) 다만, 현재 활용된 POS 자료는 오프라인 판매 흐름을 반영하므로 전체 김치 소비 동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가 필요함.

1.6. 마늘

마늘 판매가격



마늘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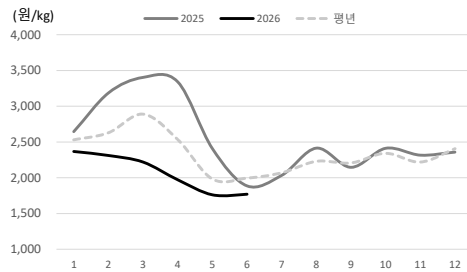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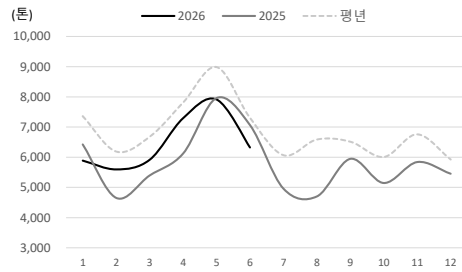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마늘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9.9% 낮은 8,925원/kg이었음.
 - 전년도 단경기 재고 감소로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4~5월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하락함.
 - 5월 이후 햇마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함.
- 2026년 2/4분기 마늘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6,204톤임.
 - 전년도보다 낮은 판매가격과 5~6월 햇마늘 출하 등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26년 2/4분기 마늘 판매액(명목)은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한 566억 원으로 추정됨.
 - 반면,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06억 원으로 추정됨.

1.7. 양파

양파 판매가격



양파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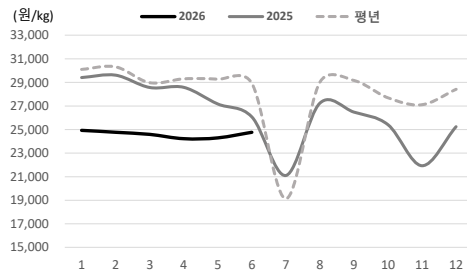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 2/4분기 양파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27.9% 하락한 1,835원/kg이었음.
– 전년도 재고량과 202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를 유지함.
- 2026년 2/4분기 양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1,535톤이었음.
– 판매가격이 하락으로 4~5월 판매가 늘면서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2/4분기 양파 판매액(명목)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한 367억 원으로 추정됨.
–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392억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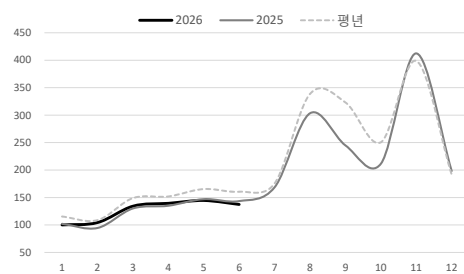
1.8. 건고추

건고추 판매가격



자료: aT KAMIS 소매가격

건고추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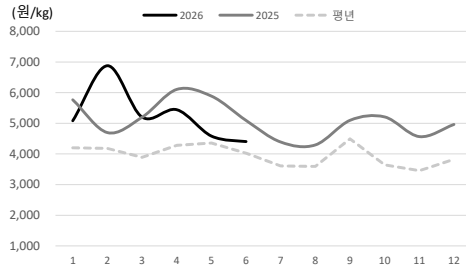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 2/4분기 건고추 소매가격⁵⁾은 전년 대비 10.4% 하락한 kg당 24,432원이었음.
 - 2025년산 재고량이 전년과 평년보다 많아 2분기 건고추(화건)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 2026년 2/4분기 건고추 판매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22톤이었음.
- 2026년 2/4분기 고춧가루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국가데이터처)는 115.0으로 전년 동기(115.6)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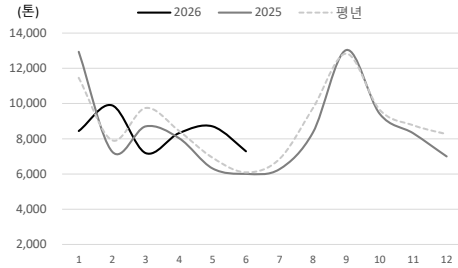
5) 건고추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타 품목과의 비교를 위해 전통시장을 제외한 유통업체 가격을 활용함. 소매유통업체 POS 자료에는 편의점과 개인슈퍼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소포장·고단가 상품이 평균가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될 수도 있어 건고추는 유통업체 중심의 KAMIS 자료를 활용함.

1.9. 사과

사과 판매가격



사과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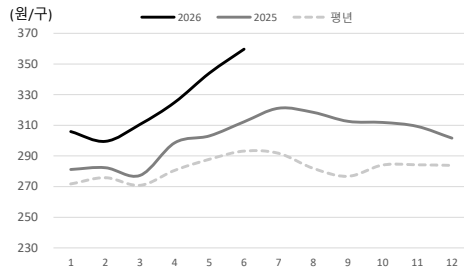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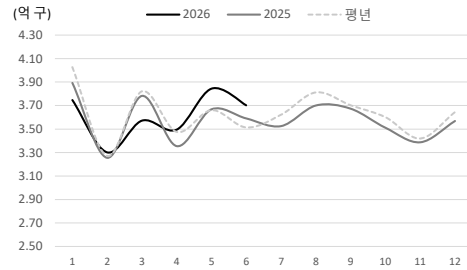
- 2026년 2/4분기 사과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5.6% 낮은 kg당 4,808원이었음.
 - 2분기 사과(후지) 도매가격은 시장 반입량 증가와 5월까지 이어진 저품위과 출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2026년 2/4분기 사과 판매량은 낮은 판매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한 24,322톤이었음.
- 2026년 2/4분기 사과 판매액(명목)은 전년과 비슷한 1,164억 원으로 추정됨.
 -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672억 원으로 추정됨.

1.10. 계란

계란 판매가격



계란 판매량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 2/4분기 계란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2.6% 상승한 구당 343원이었음.
 -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 생산량이 줄어 2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2026년 2/4분기 계란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억 구로 조사됨.
 - 판매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계란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임.
- 2026년 2/4분기 계란 판매액(명목)은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한 3,853억 원으로 추정됨.
 - 실질 판매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528억 원으로 추정됨.

2. 소비 의향⁶⁾

2.1. 식품산업⁷⁾

- 2026년 2/4분기 식품산업 경기 전반 현황지수는 93.3으로 전기 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사업체가 많음.
 -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53.1%),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금리, 환율 상승 등의 경제 불안 요소(32.2%), 행사·명절·방학 등의 시기적 요인(6.0%)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으로 나타남.
- 2026년 3/4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100.4로, 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업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원인은 ‘행사·명절·방학 등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호전(41.8%)’, 원재료 작황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호전(26.8%), 거래 및 소비 증가로 인한 호전(16.8%) 순으로 조사됨.

식품산업 경기 현황 및 전망

(전기 대비)

구분	2025				2026		
	1/4	2/4	3/4	4/4	1/4	2/4	3/4 ^f
경기 전반	86.3	86.7	96.3	92.7	94.2	93.3	100.4

주: 2026년 2/4분기까지의 자료는 현황 지수이며, 2026년 3/4^f분기 자료는 전망 지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6),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안주영 연구원(ajuy@krei.re.kr), 노수정 전문연구원(nosu303@krei.re.kr)이 작성함.

7) 식품산업 부문 소비 의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년 2분기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식품산업 경기 전반 현황 및 전망지수(0~2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는 전분기 대비 당분기 및 익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감경기를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전기 대비 경기 하락감소 또는 악화를, 100보다 높으면 경기 상승 증가 또는 호전을 나타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

- 2026년 2/4분기 식품산업 대부분 업종에서는 전기 대비 경기 악화를 체감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육류가공(87.6) 업종은 큰 폭의 경기 악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낙농빙과(103.3) 업종은 행사·명절·방학 등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호전을 체감하고 있음.
- 2026년 3/4분기 식품산업 경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지제조업(103.3), 낙농빙과(106.5) 등의 업종에서는 전기 대비 경기 호전을 전망하며, 시기적 요인(행사, 명절, 방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
 - 한편, 육류가공, 과실·채소, 떡빵과자 등의 업종은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안, 환경적 요인 등의 이유로 경기 악화를 전망함.

식품산업 업종별 경기 현황 및 전망

(전기 대비)

구분	2025				2026		
	1/4	2/4	3/4	4/4	1/4	2/4	3/4 ^F
전체	86.3	86.7	96.3	92.7	94.2	93.3	100.4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7.6	82.2	91.1	87.3	108.3	87.6	95.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9.2	72.6	106.1	83.1	78.9	93.2	98.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86.0	90.9	109.1	95.0	93.7	94.1	103.3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99.1	97.5	102.8	88.9	100.2	103.3	106.5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59.8	82.3	87.8	92.5	96.7	98.7	101.4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90.4	81.0	98.1	89.3	91.6	89.4	98.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91.4	98.6	101.2	97.7	92.3	95.2	101.7

주: 2026년 2/4분기까지의 자료는 현황지수이며, 2026년 3/4분기 자료는 전망지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6),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2.2. 외식산업⁸⁾

- 매출액 기준, 2026년 2/4분기 외식산업 경기 현재지수는 78.8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으나, 감소폭은 전기 대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5월 가정의 달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가성비 중심의 외식 소비 흐름이 확대되어 전기 대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2026년 2/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체감하나, 대부분 업종의 매출액 감소폭은 전기 대비 작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제과점업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감소폭 역시 전기 대비 커진 것으로 체감함.
- 2026년 3/4분기 전망지수는 84.1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5분기 연속 상승하던 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함.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효과 종료에 따른 외식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94.1)의 전망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장 음식 서비스업(77.8), 주점업(80.2), 한식 음식점업(80.6)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8) 외식산업 부문 소비 의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년 2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50~150 사이의 값으로 표현)는 전년 동분기 대비 현 분기의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현재 지수와 다음 분기의 경기 수준을 예측하는 전망지수로 구분되며, 100보다 낮으면 전년 동분기 대비 경기 감소를, 100보다 높으면 경기 증가를 나타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

외식산업 경기 동향 및 전망(매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5				2026		
	1/4	2/4	3/4	4/4	1/4	2/4	3/4 ^F
매출액 지수	70.8	72.8	76.8	75.1	76.8	78.8	84.1
한식 음식점업	66.8	68.7	73.4	72.5	73.0	73.9	80.6
외국식 음식점업	76.7	74.9	80.1	78.9	79.2	82.0	85.3
기관 구내식당업	92.9	95.8	96.3	95.0	92.9	92.0	9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75.1	67.4	70.9	71.1	74.5	72.8	77.8
제과점업	77.3	78.9	83.8	82.2	85.7	84.2	88.5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73.9	77.9	84.4	81.4	80.9	84.5	87.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6.7	73.7	75.1	73.5	77.5	80.2	85.3
주점업	64.6	66.5	69.9	67.1	71.1	72.2	80.2
비알코올 음료점업	80.0	81.3	83.2	80.8	84.2	89.6	91.6

주: 2026년 2/4분기까지의 자료는 현재지수이며, 2026년 3/4분기 자료는 전망지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6),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 2026년 2/4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지수는 138.4로 전년 동기 대비 식재료 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가 많으며, 상승폭은 전기 대비 커져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식재료 원가 상승폭이 커진 원인으로는 중동사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업종에서 2026년 2/4분기 식재료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체감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가 상승폭도 전기 대비 커진 것으로 나타남.
 - 기관 구내식당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식재료 원가 상승폭이 전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3/4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전망지수는 130.2로 전년 동기 대비 식재료 원가 상승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으나, 상승폭은 전기 대비 작아질 것으로 전망됨.
- 모든 업종에서 2026년 3/4분기 식재료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외식산업 경기 동향 및 전망(식재료 원가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5				2026		
	1/4	2/4	3/4	4/4	1/4	2/4	3/4 ^F
식재료 원가지수	140.2	139.3	139.6	137.0	136.8	138.4	130.2
한식 음식점업	143.3	141.9	142.3	139.1	140.0	141.2	132.1
외국식 음식점업	140.4	138.8	139.6	137.7	137.0	139.2	130.5
기관 구내식당업	131.7	130.0	132.3	129.7	133.3	133.0	128.0
출장 음식 서비스업	146.1	144.8	142.4	143.8	140.7	147.4	139.6
제과점업	138.8	137.6	134.5	134.9	128.6	131.9	126.2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134.2	135.4	134.6	132.3	132.8	134.8	128.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140.4	139.7	142.1	139.1	136.6	141.3	131.5
주점업	142.8	142.7	141.9	141.2	138.2	140.5	130.7
비알코올 음료점업	133.8	132.7	133.9	129.7	132.1	131.0	125.8

주: 2026년 2/4분기까지의 자료는 현재지수이며, 2026년 3/4분기 자료는 전망지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6),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특별주제

여름철 과일 소비행태 및 시사점

여름철 과일 소비행태 및 시사점¹⁾

김서영*, 정태호**

1.1. 포도 구매 행태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포도 품종은 ‘샤인머스켓(40.1%)’이며, ‘거봉(26.6%)’, ‘캠벨얼리(23.4%)’가 뒤를 이었음. 젊은 연령층은 샤인머스켓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고연령층은 상대적으로 거봉과 캠벨얼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대별 소비 성향 차이가 있음.
- 월평균 포도 구매비용은 ‘2만 원 미만’(3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4만 원 미만’(33.0%), ‘4~6만 원 미만’(15.8%), ‘6만 원 이상’(13.2%) 순으로 조사됨. 또한, 연령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포도 구매 빈도가 높고 월평균 구매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포도 구입 빈도는 ‘한 달에 1~3회’(54.0%)가 가장 많았으며, ‘3개월에 1~2회’(23.8%), ‘일주일에 1회 이상’(17.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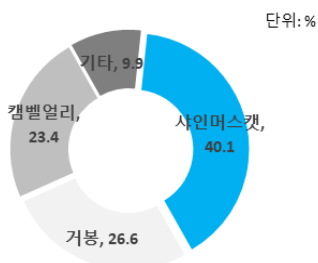
1) 본고는 노호영 외(2026)의 ‘2026년 여름철 과일·과채류 소비 행태 조사’ 작성을 위해 실시한 「2026년 농식품 소비경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ksy1208@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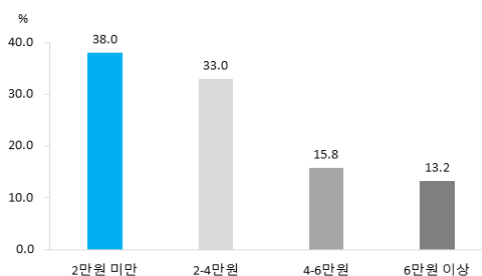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tatic_ho@krei.re.kr)

소비자 선호 포도 품종 및 월평균 포도 구매비용

〈소비자 선호 포도 품종〉



〈월평균 포도 구매비용〉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포도 가격 상승 시 대체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과일·과채류로 대체 구매를 고려하는 가격 상승폭은 20% 이내가 68.1%로 나타남. 이는 포도 가격이 약 20%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의 대체 구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수입과일로의 대체 구매 의향 역시 20% 이내 가격 상승 시 61.5%로 나타나, 국내산 과일·과채류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다만 수입과일의 경우 21~30% 가격 상승 구간의 응답 비중(26.4%)이 국내산 과일·과채류(22.9%)보다 높게 나타남. 수입과일로의 대체 구매가 국내산 과일·과채류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 구간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국산 포도의 가격 상승 허용 한계는 약 20% 수준으로 판단되며, 가격 상승폭이 20% 내외에 도달할 경우 국내산 과일·과채류뿐만 아니라 수입과일로의 대체 소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포도 가격 상승구간별 대체 구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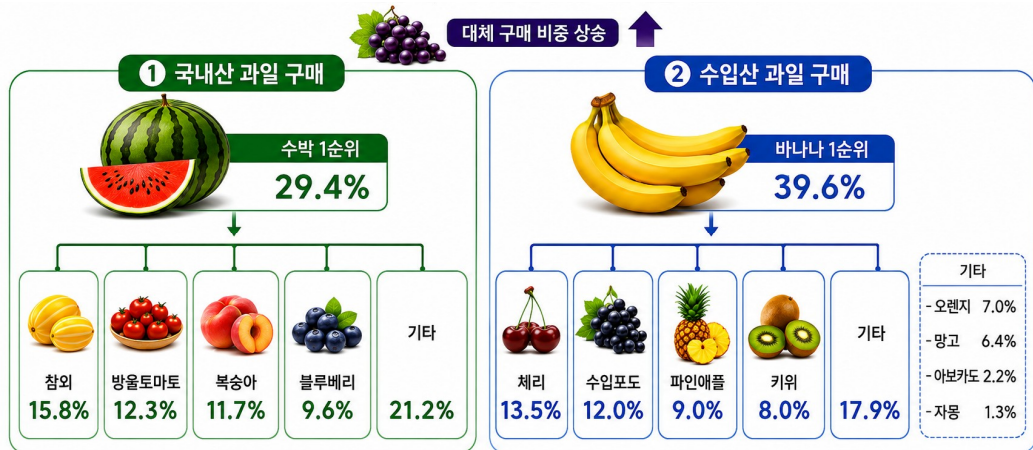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격 상승폭					전체
	10% 이하	11~20%	21~30%	31~50%	50% 초과	
국산과일과채	27.3	40.8	22.9	5.8	3.2	100.0
수입과일	25.7	35.8	26.4	7.9	4.2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포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산 과일·과채류의 대체 구매 품목으로는 ‘수박’(29.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외’(15.8%), ‘방울토마토’(12.3%), ‘복숭아’(11.7%), ‘블루베리’(9.6%) 순임. 연령이 낮을수록 ‘수박’을, 연령이 높을수록 ‘참외’를 대체 구매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수박’을 선택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년에는 ‘수박’(26.9%), ‘방울토마토’(18.7%), ‘복숭아’(16.4%), ‘참외’(12.7%), ‘블루베리’(9.8%) 순이었으나, 올해는 ‘참외’의 대체 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방울토마토와 복숭아를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입과일류의 대체 구매 의향은 ‘바나나’(39.6%)가 가장 높았으며, ‘체리’(13.5%), ‘수입포도’(12.0%), ‘파인애플’(9.0%), ‘키위’(8.0%) 등의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소비패턴을 보였음. 소득이 낮을수록 ‘바나나’를 대체 품목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입포도’를 선택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포도 가격 상승시 대체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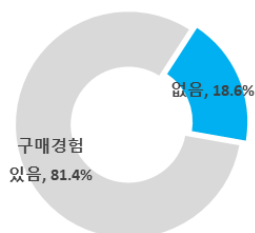
주: 본 그림은 도식화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인 ChatGPT(Open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
자료: 저자작성

1.2. 샤인머스켓 구매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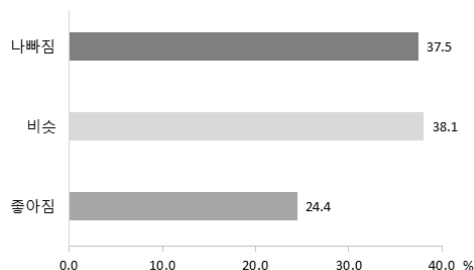
- 샤인머스켓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81.4%이며, 이 중 품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한 소비자는 37.5%로 품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24.4%)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구입한 샤인머스켓 품질에 '만족(45.8%)' 또는 '매우 만족(4.5%)'하는 소비자는 50.4%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전년 조사 결과('만족'(45.5%), '매우 만족'(7.6%)) 대비 만족도가 하락함.

샤인머스켓 구매 경험 및 품질 변화

〈샤인머스켓 구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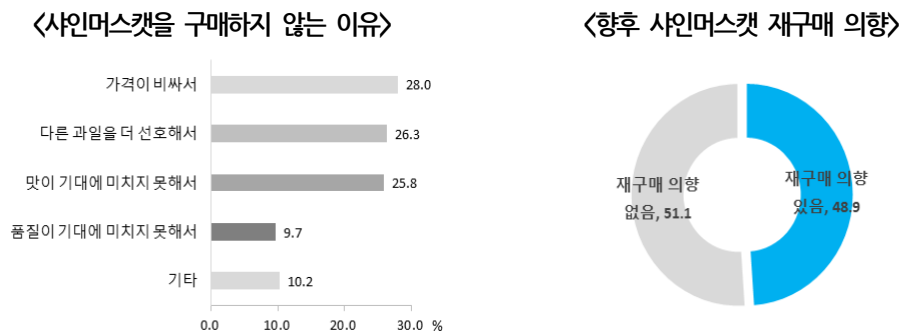
〈샤인머스켓 품질 변화〉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샤인머스켓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28.0%), ‘다른 과일을 더 선호해서’(26.3%),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25.8%),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9.7%) 순임.
- 맛 또는 품질 때문에 샤인머스켓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대신 구매하는 과일로는 다른 품종의 ‘포도’(20.4%), ‘방울토마토’(19.9%), ‘복숭아’(12.9%), ‘수박’(11.8%), ‘참외’(8.6%) 순임.
- 향후 맛과 품질이 개선된다면 샤인머스켓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의 절반 정도는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는’(48.9%) 것으로 나타남.
- 품질 개선 이후에도 샤인머스켓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샤인머스켓을 선호하지 않아서’(37.9%), ‘다른 과일을 더 선호해서’(26.3%), ‘가격이 비싸서’(25.3%) 등임.

샤인머스켓 미구매 이유, 향후 재구매 의향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1.3. 샤인머스켓 IPA분석

- 샤인머스켓 속성별 중요도 조사 결과, ‘신선도’(4.38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맛(당도)’(4.32점), ‘안전성’(4.13점), ‘식감’(4.05점), ‘가격’(3.91점)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품질’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만족도는 ‘신선도’(3.70점)가 가장 높았으며, ‘안전성’(3.62점), ‘포장 단위’(3.59점), ‘색깔’(3.59점), ‘크기’(3.57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격’(3.34점), ‘향’(3.37점), ‘맛(당도)’(3.42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I-P)는 ‘맛(당도)’이 0.90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 ‘신선도’(0.68점), ‘가격’(0.57점), ‘식감’(0.56점), ‘안전성’(0.51점) 순으로 조사됨. 이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속성에 비해 실제 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함.
- 반면, ‘모양’(−0.07점)과 ‘브랜드(산지)’(−0.04점)는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향후

샤인머스켓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맛(당도) 개선과 가격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향’, ‘브랜드(산지)’, ‘씨 유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상대적으로 개선 우선순위는 낮음.

샤인머스켓 속성별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중요도(I)		만족도(P)		차이(I-P)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가격 속성	가격	3.91	5	3.34	12	0.57
품질 속성	맛(당도)	4.32	2	3.42	10	0.90
	신선도	4.38	1	3.70	1	0.68
	식감	4.05	4	3.49	7	0.56
	향	3.69	8	3.37	11	0.31
외관 속성	크기	3.78	6	3.57	5	0.20
	색깔	3.73	7	3.59	3	0.14
	모양	3.45	11	3.52	6	-0.07
부가 속성	안전성	4.13	3	3.62	2	0.51
	씨 유무	3.65	9	3.48	8	0.16
	포장 단위	3.60	10	3.59	4	0.02
	브랜드(산지)	3.43	12	3.47	9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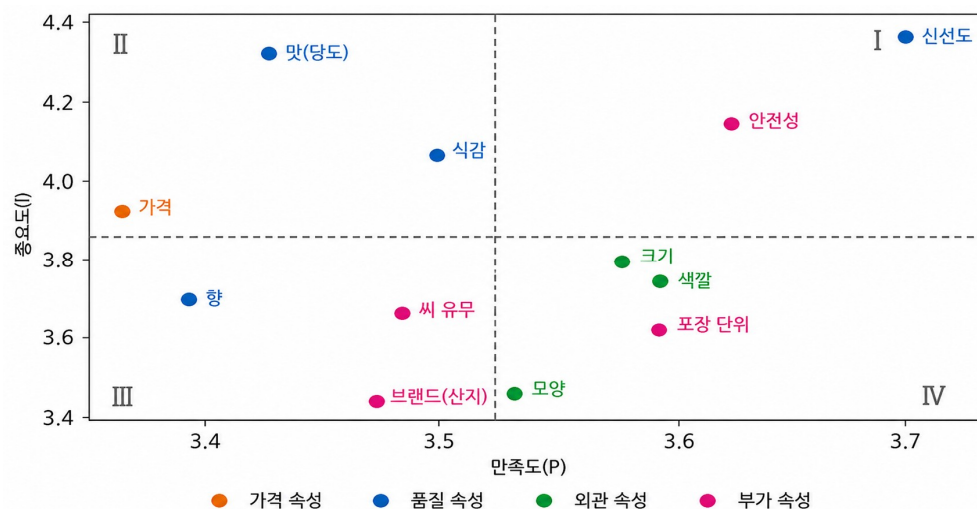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포도 구매 속성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결과, 유지 강화 영역(I사분면)에는 ‘신선도’와 ‘안전성’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속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만족 수준 또한 높다는 의미로 샤인머스켓의 핵심 경쟁력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의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집중 개선 영역(II사분면)에는 ‘맛(당도)’과 ‘식감’, 그리고 ‘가격’이 위치하였음. 특히, 맛과 식감은 소비자가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됨. 가격도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소비자 체감 가격 부담 완화 또는 품질 대비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낮은 우선순위 영역(Ⅲ사분면)에는 ‘향’, ‘브랜드(산지·브랜드 인지도)’, ‘씨 유무’가 위치하였음. 해당 항목들은 소비자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적인 개선 우선순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과잉 투자 영역(Ⅳ사분면)에는 ‘크기’, ‘색깔’, ‘모양’, ‘포장 단위’가 위치하였음. 이는 소비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의 필요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됨.
- 소비자는 샤인머스켓 구매 시 ‘신선도’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맛(당도)’, ‘식감’, ‘가격’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샤인머스켓의 소비 확대와 재구매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도 안정화, 식감 개선, 가격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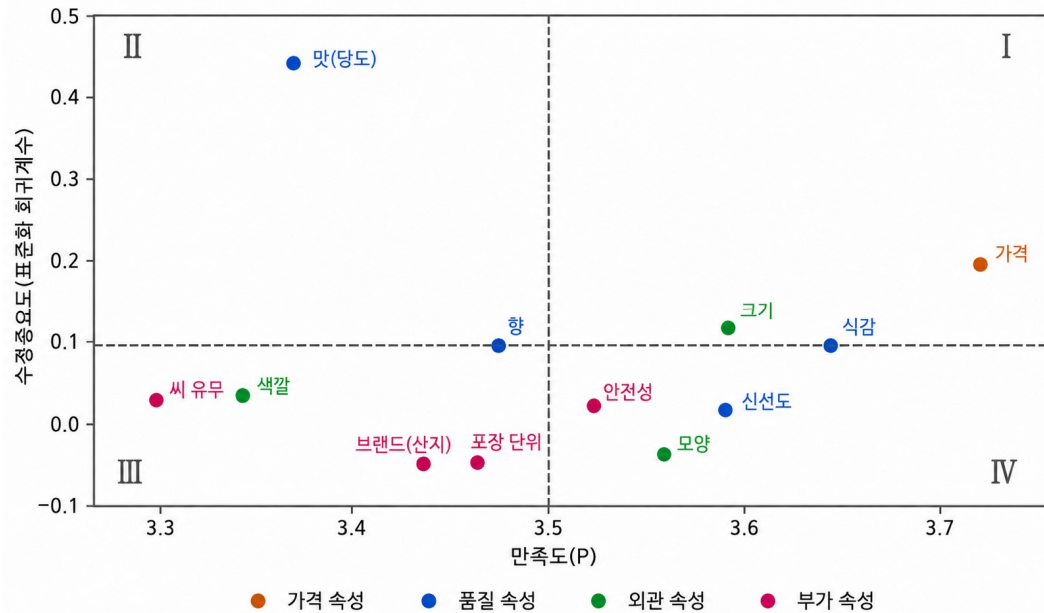
샤인머스켓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1.4. 샤인머스켓 수정 IPA분석

- 수정 IPA는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구매 속성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표준화 회귀계수를 수정 중요도로 활용함. 이에 따라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중요도를 사용하는 일반 IPA와 일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두 분석 결과를 상호 보완적인 해석이 가능함.
- ‘맛(당도)’는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속성이지만 현재 만족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핵심 속성으로 분석됨. 반면, ‘가격’, ‘식감’, ‘크기’는 만족도와 수정 중요도가 모두 높아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신선도’와 ‘안전성’, ‘모양’은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브랜드(산지)’, ‘씨 유무’, ‘색깔’은 만족도와 수정 중요도가 모두 낮아 단기적인 개선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기존 IPA에서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으나, 수정IPA에서는 ‘맛(당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소비자들이 신선도에는 이미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어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당도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 전체 만족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실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도 향상’에 우선순위는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샤인머스켓 수정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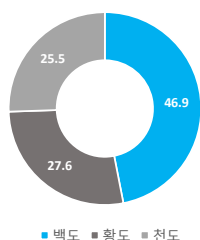
2.1. 복숭아 구매행태

- 복숭아 품종별 선호도는 ‘백도’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황도’(27.5%)와 ‘천도’(25.5%)는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임. 2025년 조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백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2026년에는 ‘30대 이하’에서 백도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년과는 다른 소비 성향을 보임.
- 복숭아 식감에 대해서는 ‘부드러움(물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5.8%로 ‘아삭함(딱딱)’(44.2%)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최근 천도복숭아와 신품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30대 이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백도 계열의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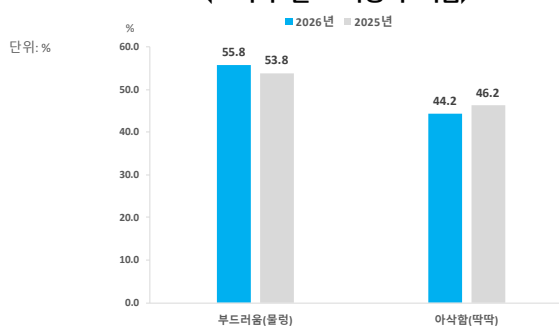
- 복숭아 구입 빈도는 ‘한 달에 1~3회’(32.3%)가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회’(23.3%), ‘3개월에 1~2회’(21.2%), ‘일주일에 1회’(11.9%) 순임. 월평균 복숭아 구매비용은 ‘2만 원 미만’(37.8%)이 가장 높았으며, ‘2~4만 원 미만’(30.7%), ‘4~6만 원 미만’(15.6%), ‘6~8만 원’(8.6%) 순으로 조사됨. 또한, 가구원 수와 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복숭아 구매비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소비자 선호 복숭아 품종 및 식감

〈소비자 선호 복숭아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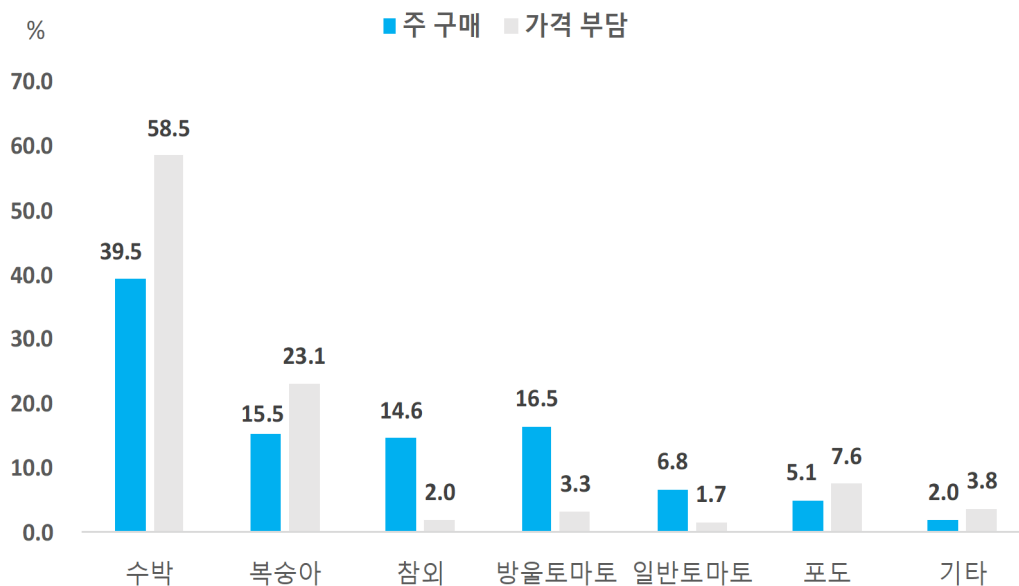
〈소비자 선호 복숭아 식감〉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과일류 중 여름철 소비자가 가장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복숭아’로, 구매 비중은 15.5%로 나타남. 대체 구매 품목에서도 복숭아는 20.0%로 전체 품목 중 두 번째이자 과일류 중 가장 높았음. 특히 대체 구매 비중이 주 구매 비중보다 4.5%p 높아, 복숭아는 다른 과일·과채류의 가격이나 품질 여건에 따라 구매가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 품목으로 분석됨.
- 반면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인 비율도 23.1%로 과일류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복숭아가 주 구매 및 대체 구매 수요가 높은 품목인 동시에 가격 부담이 실제 구매 결정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줌.

여름철 품목별 주요 구매 및 가격 부담 비중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복숭아 가격 상승 시 대체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과일·과채류로 대체 구매를 고려하는 기준은 가격 상승폭 20% 내외로 나타남. 응답자의 67.7%가 가격이 20% 이내 상승할 경우 대체 구매를 고려한다고 응답해, 가격 상승폭이 20% 수준에 이르면 대체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산 과일·과채류로의 대체 구매를 고려하는 가격 상승폭 역시 20% 이내 (61.0%)로 나타나 국내산 과일·과채류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이는 복숭아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대체 구매 기준이 국내산과 수입산 여부보다는 가격 수준 자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함.

복숭아 가격 상승구간별 대체 구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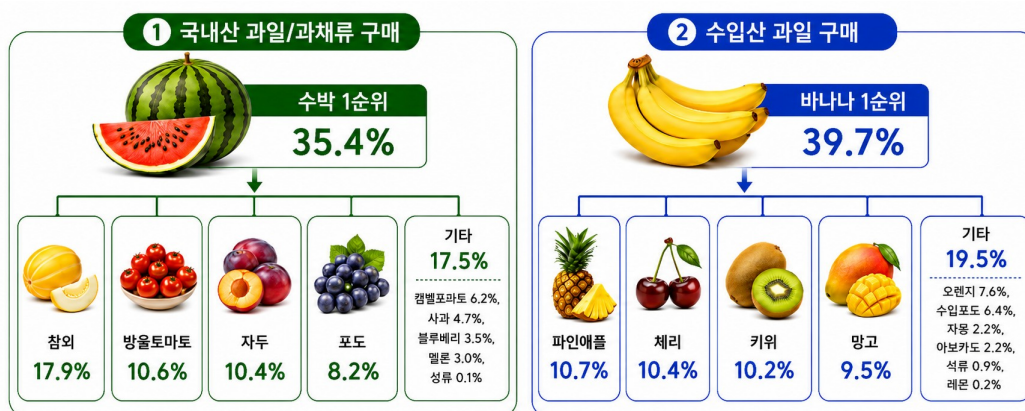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격 상승폭					전체
	10% 이하	11~20%	21~30%	31~50%	50% 초과	
국산과일과채	28.4	39.3	23.0	5.9	3.4	100.0
수입과일	26.0	35.0	27.1	7.4	4.5	100.0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복숭아 가격 상승 시 대체 구매할 국내산 과일·과채류를 조사한 결과, ‘수박’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참외’(17.9%), ‘방울토마토’(10.6%), ‘자두’(10.4%), ‘포도’(8.2%) 순으로 나타남. 복숭아와 출하 시기가 겹치는 여름철 제철 과일·과채류를 중심으로 대체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산 과일의 경우, ‘바나나’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파인애플’(10.7%), ‘체리’(10.4%), ‘키위’(10.2%), ‘망고’(9.5%) 순으로 나타남. 바나나는 여름철 수입과일 중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라는 점이 대체 구매 의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파인애플과 체리는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임.

복숭아 가격 상승시 대체 구매



주: 본 그림은 도식화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인 ChatGPT(Open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
자료: 저자작성

2.2. 복숭아 IPA분석

- 복숭아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에 대한 조사 결과, ‘맛(당도)’(4.3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신선도’(4.34점), ‘식감’(4.15점), ‘안전성’(4.08점), ‘가격’(3.95점)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복숭아 구매 시 품질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만족도는 ‘신선도’(3.73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안전성’(3.63점), ‘식감’(3.61점), ‘맛(당도)’(3.60점), ‘색깔’(3.60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가격’(3.20점)은 모든 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낮아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I-P)는 ‘맛(당도)’(0.77점)과 ‘가격’(0.75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 ‘신선도’(0.61점), ‘식감’(0.54점), ‘안전성’(0.45점) 순으로 조사됨. 이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속성에 비해 실제 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함.
- 반면 ‘브랜드’(-0.11점)와 ‘모양’(-0.08점)은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복숭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맛(당도) 품질 제고와 가격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복숭아 속성별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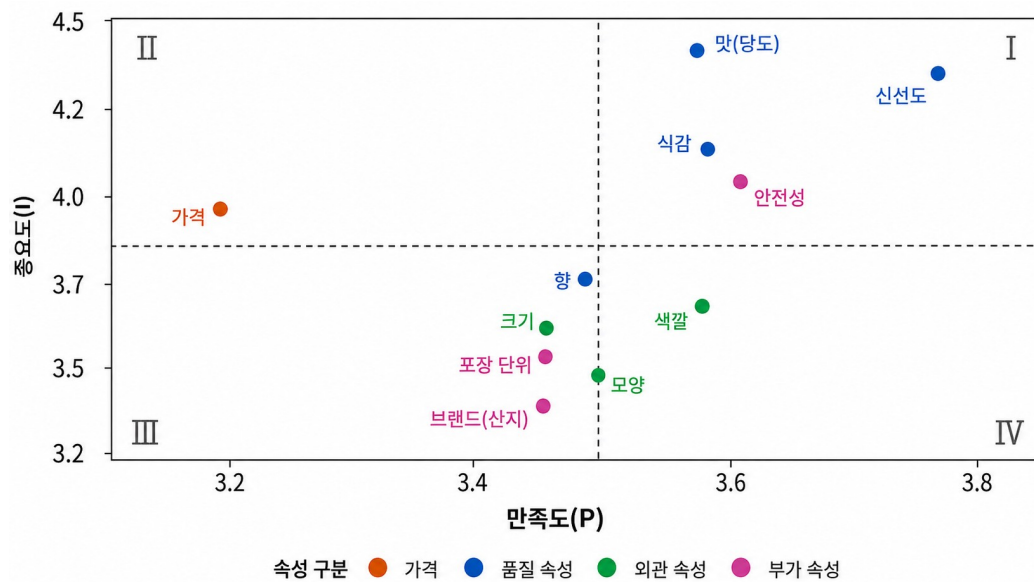
구분		중요도(I)		만족도(P)		차이(I-P)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가격 속성	가격	3.95	5	3.20	11	0.75
품질 속성	맛(당도)	4.37	1	3.60	4	0.77
	식감	4.15	3	3.61	3	0.54
	향	3.80	6	3.54	6	0.26
	신선도	4.34	2	3.73	1	0.61
외관 속성	모양	3.46	10	3.54	7	-0.08
	크기	3.60	8	3.49	9	0.11
	색깔	3.69	7	3.60	5	0.09
부가 속성	포장 단위	3.52	9	3.51	8	0.01
	안전성	4.08	4	3.63	2	0.45
	브랜드	3.38	11	3.49	10	-0.11

자료: 「2026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소비자 조사 결과(2026.6.26~30.)

- 복숭아 구매 속성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유지 강화 영역(I사분면)에는 ‘맛(당도)’, ‘식감’, ‘신선도’ 및 ‘안전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요소들이 위치하였음. 해당 항목들은 복숭아 구매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실제 구매 만족도도 높은 핵심 속성으로 품질 속성이 주를 이루나, 타 속성에서 유일하게 안전성이 포함됨.
- 집중 개선 영역(II사분면)에는 ‘가격’이 유일하게 위치하였음. 이는 소비자가 복숭아 구매 시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데 비해 실제 가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포장 확대 등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낮은 우선순위 영역(III사분면)에는 ‘향’, ‘모양’, ‘크기’, ‘포장 단위’ 및 ‘브랜드 (산지)’가 위치하였음.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상대적으로 타 요소에 비해 개선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잉 투자 영역(IV사분면)에는 ‘색깔’이 위치하였음.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보다는 가격과 맛·신선도 등 핵심 품질 속성 관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복숭아 소비 확대와 재구매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 부담 완화와 함께 맛·신선도·식감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핵심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복숭아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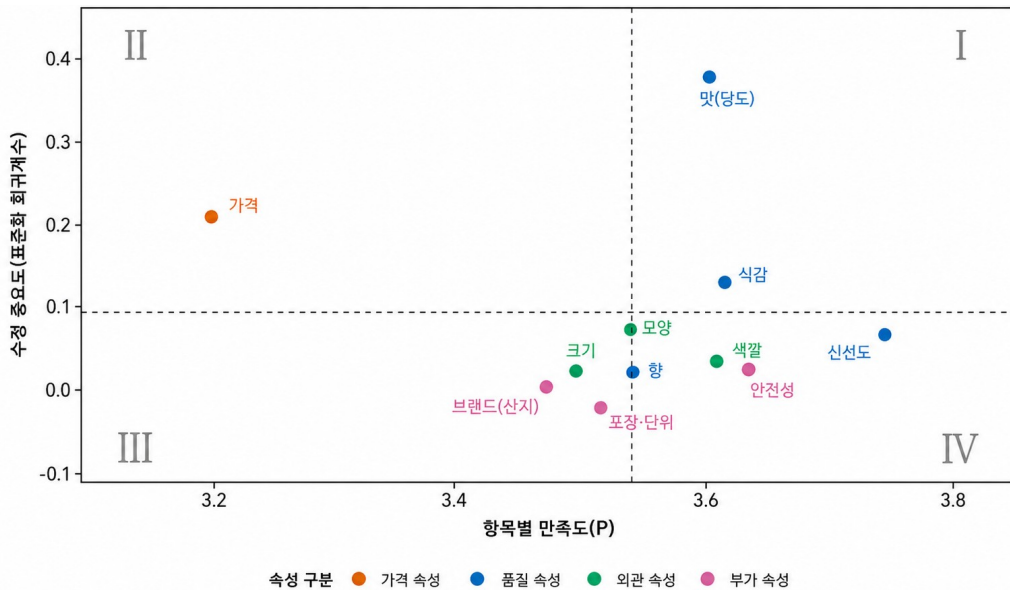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3. 복숭아 수정 IPA분석

- 유지·강화 영역(I사분면)에는 ‘맛(당도)’과 ‘식감’이 위치하였음. 두 항목은 만족도와 수정 중요도가 모두 높은 핵심 속성이며, 특히 ‘맛(당도)’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가장 높아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당도와 식감 등 주요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집중 개선 영역(II사분면)에는 ‘가격’이 유일하게 위치하였음. 이는 가격 만족도가 낮은 반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단순한 가격 인하보다는 소포장 확대, 품위·규격별 상품 구성 및 가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낮은 우선순위 영역(III사분면)에는 ‘크기’, ‘포장 단위’ 및 ‘브랜드(산지)’가 위치하였음. 이들 항목은 만족도와 수정 중요도가 모두 낮아 가격이나 맛 등 핵심 속성과 비교하면 개선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과잉 투자 영역(IV사분면)에는 ‘색깔’, ‘신선도’ 및 ‘안전성’이 위치하였음. 이들 항목은 수정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성으로, 추가적인 개선 투자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과 맛·식감 등 개선 효과가 큰 항목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일반 IPA와 수정 IPA 모두 ‘맛(당도)’과 ‘식감’은 유지·강화 영역, ‘가격’은 집중 개선 영역에 위치함. 따라서 맛과 식감의 품질 유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 완화가 가장 일관된 우선 과제로 판단됨. 또한, 일반 IPA에서 핵심 속성이었던 ‘신선도’와 ‘안전성’은 수정 IPA에서는 과잉 투자 영역으로 이동함. 이는 소비자가 두 속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현재 만족 수준에서는 전반적 만족도를 추가로 높이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신선도와 안전성은 기본적인 구매 전제이므로 관리를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복숭아 수정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3. 요약 및 시사점

- 소비자는 포도와 복숭아를 주로 ‘한 달에 1~3회’ 구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구매비용으로 ‘2만 원 미만’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산 포도, 복숭아의 가격 상승 허용 한계는 약 20% 수준으로 판단되며, 가격 상승폭이 20% 내외에 도달할 경우 국내산 과일·과채류뿐만 아니라 수입과일로의 대체 소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포도·복숭아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산 과일·과채류의 대체 구매 품목으로는 ‘수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외’, ‘방울토마토’ 등의 순임. 수입과일류의 대체 구매 의향은 ‘바나나’가 가장 높았으며, ‘체리’, ‘파인애플’, ‘키위’ 등의 순임.

- 구매 속성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결과, 포도의 집중 개선 영역(II사분면)에는 ‘맛(당도)’과 ‘식감’, 그리고 ‘가격’이 위치하였음. 특히 맛과 식감은 소비자가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됨. 또한 가격 역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 완화 또는 품질 대비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복숭아의 집중 개선 영역(II사분면)에는 ‘가격’이 유일하게 위치하였음. 이는 소비자가 복숭아 구매 시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데 비해 실제 가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포장 확대 등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포도의 기존 IPA에서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으나, 수정IPA에서는 ‘맛(당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소비자들이 신선도에는 이미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어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당도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 전체 만족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실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도 향상’에 우선순위는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복숭아의 일반 IPA와 수정 IPA 모두 ‘맛(당도)’과 ‘식감’은 유지·강화 영역, ‘가격’은 집중 개선 영역에 위치함. 따라서 맛과 식감의 품질 유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 완화가 가장 일관된 우선 과제로 판단됨.



KREI 농업관측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061-820-2235 Fax.061-820-2409
<http://www.krei.re.kr>